



월드미션대학교 소그룹 사역센터와 기독일보가 공동으로 소그룹 세미나를 개최했다. © 기독일보

교회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라 성경 중심 소그룹으로 현장 목회 혁신

월드미션대학교 소그룹 사역센터와 기독일보 공동 진행 소그룹 사역 지원 프로그램

월드미션대학교 소그룹 사역센터(디렉터 신선목 교수)와 기독일보는 지난 3월 23일(월) 오전 10시, 월드미션대학교 5층 멀티미디어룸에서 ‘교회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라’는 주제로 소그룹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WMU 소그룹 사역센터와 기독일보가 진행하는 ‘지역교회 활성화를 위한 소그룹 사역 지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열렸다. 두 단체는 2026년 한 해 동안 15교회를 선정해 소그룹 활성화를 지원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기독일보는 교회 모집과 선정 업무를 담당한다. 선정된 교회는 프로그램을 위한 гран트(\$3,000)를 지급받고, 소그룹 사역 센터의 교육 지원을 받게 되며, 진행된 사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날 세미나는 유경재 목사의 ‘

소그룹 중심 목회 사역의 실제’, 이 수호 목사의 ‘말씀 중심 소그룹 구조와 실제 적용 사례’ 강의와 신선목 교수의 ‘소그룹 사역 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로 구성됐다.

유경재 목사(나성북부교회)는 나성북부교회에 대해 70세 이상과 60대 교인이 2/3, 60대 이하가 1/3을 구성하는 연령층이 높은 교회라며 성경공부를 제안했을 때 성도들의 반응은 미온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성경공부 소그룹 사역의 배경을 캠퍼스 사역 경험과 그의 학업에서 찾았다. 캠퍼스 사역을 통해 교회를 오래 다닌 학생들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발견했고, 고든 콘웰과 골든 게이트 세미나리에서 성경신학을 공부하며 얻은 지식과 방법론을 소그룹 운영에 접목했다.

“캠퍼스에서 대학생들과 사역을 하다 보니, 의외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잘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다.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보통 선교단체에 들

어오는데, 그런 친구들을 봐도, 막상 성경을 텍스트 중심으로 공부하는 교회가 많지 않았다.”

“제 목회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성도들이 성경공부가 재미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20~30명을 대상으로 개설한 성경공부 반을 2년간 운영했지만, 성도들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소그룹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그런데 성경공부 소그룹을 시작할 때 그가 직면한 가장 큰 고민은 ‘인도자 역할이 모임의 질을 좌우한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담임목사 혼자 모든 모임을 인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그가 도달한 해결책은 교제 중심 소그룹이었다.

“교제 중심으로 진행하면 누가 인도하든 똑같다. 제가 인도하나, 부목사님, 장로님이 인도하나 차이가 없다. 성도들에게 이 점을 명확히 인식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주디한 기자 → 2면에서 계속



연례 SEU 컨퍼런스, © SEU Press Office

애즈베리 부흥 났은 흐름 美 대학생들, 회개와 선교 결단

미국 플로리다의 사우스이스턴 대학(Southeastern University)에서 학생들이 장시간 예배와 기도, 회개에 참여하는 가운데 영적 부흥과 유사한 움직임이 나타나 주목을 받고 있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기독교 작가이자 강연자인 제니 앨런(Jennie Allen)은 최근 해당 대학에서 목격한 현상이 2023년 애즈베리 대학(Asbury University)에서 시작된 부흥 초기와 매우 유사했다고 밝혔다.

‘이프: 개더링’(IF: Gathering)과 ‘개더25’(Gather25)를 설립한 앨런은 대학 캠퍼스를 순회하며 사역을 이어오던 중 플로리다 대학에 초청받아 메시지를 전했다. 이후 예상치 못한 영적 반응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그는 “약 20개 캠퍼스를 다니며 회개와 복음, 세례에 대한 강력한 반응을 반복적으로 목격했다”며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의 분위기가 크게 전환된 순간은 설교 이후 진행된 공개 회개 시간이었다. 앨런은 한 여학생이 “낙태”라고 크게 외친 뒤 바닥에 쓰러졌고, 그 이후 분위기가 급격히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순간 이후 모든 것이

진지해졌다”며 “학생들이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더 깊은 이야기들을 꺼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약 15분간 이어진 공개 회개 시간 동안 학생들은 각자의 죄와 상처를 나눴으며, 이후 사역과 선교에 헌신하겠다는 결단 요청에 전체의 약 3분의 2가 앞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집회는 수 시간, 나아가 수일 동안 계속됐으며, 학생들은 밤늦게까지 예배와 기도를 이어갔다. 앨런은 일정까지 변경해 새벽 3시까지 현장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현상이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깊은 영적 갈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앨런은 최근 저서 ‘The Lie You Don’t Know You Believe’를 통해 2세대의 내면을 연구했으며, 학생들이 고백하는 주요 문제로 무가치감, 불안, 자살 충동 등을 꼽았다.

그는 “거의 매번 캠퍼스에서 강연할 때마다 학생들이 ‘죽고 싶다’고 말한다”며 “이는 매우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독 문제의 이면에는 어린 시절의 상처가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미경 기자 → 12면에서 계속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링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소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라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소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태양광, 솔라!!
 2026년 대박
 ●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 연방 ITC: 30% 이상
 ●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6년 설치 시)
 ● 원금 회수 기간: 3년~6년
 ● 교회는 공사비의 40%까지 인센티브 가능(Direct IRS)
BTS SOLAR DESIGN 213.500.8000

“다시 살아나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라”
 에스겔 37장 5절
2026 OC교계연합 부활절 연합예배
 일시 2026년 4월 5일(주일) 새벽 5시30분
 장소 **갈보리선교교회** (심상은 목사 시무)
 8700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0
 문의 (714) 336-0520
 OC교협 총무 이사야 목사(뉴스타트교회)

미디어협찬 **미주복음방송** **크리스천헤럴드** **CHTV** **미주크리스천신문** **기독일보**
CTS America **크리스천비전** **사람과사회(People'n Society)**
 주 관 **OC기독교교회협의회**
 THE KOREAN CHURCH COUNCIL OF ORANGE COUNTY
 공동 주관 **오렌지카운티장로협의회** **오렌지카운티 목사회** **오렌지카운티한인여성목사회**
오렌지카운티기독교전도회연합회

남가주 중보 기도팀 연합 기도대회 성료

‘남가주 중보기도팀 연합 기도대회’(운영위원장 강순영목사)가 지난 3월 18일(수) 오전 10시 감사한인교회(구봉주 목사)에서 열렸다.

감사한인교회 중보기도 담당 교역자인 전영숙 전도사가 진행한 1부 예배는 OC 교협회장 최국현 목사의 개회 기도, 이연숙 권사(감사한인교회) 성경봉독에 이어서 김영길 목사(감사한인교회 원로)의 설교가 있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사무엘의 고백을 근거로 김영길 목사는 중보기도자 사명의 중요성을 설교했다. CTS 합창단의 찬양, 최학량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기도회는 중보기도팀 연합 기도회 사무총장인 강태광 목사(World Share USA 대표)의 사회



남가주 중보기도팀 연합 기도대회가 감사한인교회에서 열렸다. ©중보기도팀

3월 18일 감사한인교회서 진행, 김영길 목사 설교

로 시작되었다. 2부에서는 총 4개의 주제로 기도했다.

제1기도(부흥을 위하여)에서는 샘신 목사의 도전에 이어, 김의숙 목사가 ‘하나님을 떠난 미국을 위해’, 강순영 목사가 ‘517대회가 미

스바 성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오충성 목사가 ‘미국과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며 기도의 불씨를 이어갔다.

제2기도(미국을 위하여)는 전영숙 전도사의 도전과 합심기도에 이

어, 조이 김 선교사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하여’, 정찬군 목사가 ‘미국을 축복’을 위해 기도했다.

OC 목사회 중찬단의 특별 찬양에 이어서 제3기도 <한국을 위하여>가 시작됐다. 세기모 대표 김영구 목사가 도전과 합심기도를 인도했고 이광수 장로가 ‘한국의 신앙부흥과 선교’와 박세현 목사가 ‘한국의 정치적 안정과 한미 관계’를 위해 기도했다.

이어서 캘리포니아에 정치 지도자로 출마한 한인 후보들-제안 주지사 후보, 영킴 연방 하원, 최석호 가주 상원, 샘신 가주 상원, 앤드류 김 LA 시장 후보, 켈빈 리 연방 하원 등을 소개했고, 이들이 캘리포니아를 위해 진출할 수 있도록 기도와 응원을 부탁했다.

제4기도(캘리포니아를 위한 기

도)의 도전과 합심 기도를 인도한 랜스킵 장로(제안 후보 후원회장)는 캘리포니아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주디하 권사가 ‘가주의 성경적 가치관을 위해’, 김영일 목사가 ‘가주 한인 후보를 위해’ 기도했다. 이날 연합 기도대회는 손창호 목사(상항 한미 장로교회 원로 목사)의 폐회기도로 마쳤다.

“이 땅을 고쳐 주소서(대하 7:14)”라는 주제로 모인 이번 기도회에는 160여 명의 기도 용사들이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았다.

감사한인교회는 식사로 참석자들을 섬겼으며 다양한 중보기도팀과 각교회 중보기도팀이 동참했다. 한편 남가주 중보기도팀 연합 기도운동은 중보기도팀 연합 기도운동에 동참할 기도팀을 찾는다.

김민선 기자

이수호 목사 “소그룹 방법론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

유경재 목사, 이수호 목사 성경 중심의 소그룹의 실제 나뉨

→ 1면 기사 <성경 중심 소그룹>에 이어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라인 모임이 익숙해진 점도 소그룹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 75세 권사, 집사들도 온라인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었으며, 소그룹 인원은 5~6명 안팎이 가장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나성북부교회에서 활용하는 주요 교재는 세 가지다. 첫번째는 랄프 윈터 박사가 선교지 사역자들의 재교육을 위해 집필한 교재인 세퍼드 라이프, 두번째는 성경통독 교재인 리딩 지저스, 세번째는 알리스터 맥그라스의 ‘기독교의 역사’이다.

세퍼드 라이프

세퍼드 라이프는 남미에서 선교 중이던 랄프 윈터 박사가, 신학생들이 과정을 마친 뒤 각 지역으로 파송되면 거리상의 이유로 재교육이 어려운 현실을 보고, 그들을 재교육하기 위해 집필한 책이다. 세퍼드 라이프는 1권부터 6권까지 있으며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를 비교 연구하고 있다. 한 권을 마치려면 보통 12주가 걸리고, 6권까지 마치려면 2년이 걸린다.

유경재 목사는 “이 책은 교육공학 적 원리를 잘 적용해 만들었다. 비슷한 질문이 조금씩 변형되어 반복되기 때문에, 과정을 진행하다 보면 내용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남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처음에는 불평



유경재 목사와 이수호 목사가 소그룹의 실제 사례와 소그룹을 하는 목적 및 철학에 대해 나누었다. © 기독교일보

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시작하고 나서는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며 “1권을 마치신 분 가운데 6권까지 완주하지 못한 분은 한 분도 없다”고 덧붙혔다.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의 허점 보완

두 번째 교재는, 성경통독 교재인 ‘리딩 지저스’(Reading Jesus)에 대해, 유경재 목사는, “성경 통독이 지닌 허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는 성경통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쉬운 점은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재하다는 점이었다. 마침 이 책을 만나게 되었다. 이 책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구약과 신약 교수님들이 집필했다. (영어 원서는 없고, 한인 교수님들의 자문을 받아 한국 상황에 맞게 만들어졌다.)”

또 한가지 특징은, 또한 매일 읽은 분량 뒤에는, 최근 신학 연구를 바탕

으로 평신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3페이지 분량의 간단한 아티클이 나온다는 점이다. 따라서 최근 신학적 흐름도 간단하게 알 수 있다. 또한 긴 글을 읽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리딩지저스 유튜브 채널에서 책의 레슨을 모두 영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알리스터 맥그라스 기독교의 역사

그가 세번째로 알리스터 맥그라스의 ‘기독교의 역사’를 선택한 이유는, 앞의 두 과정을 했을 때, 역사적 컨텍스트 없이 성경해석의 이해폭이 넓어지지 않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이 책은 컴팩트하게 핵심적인 것만 빠지지 않고 다룬다. 그렇지만 두께가 얇지 않아, 처음에 이 소그룹을 시작할 때 몇 분이나 참여할까 고민했다. 그런데 의외로 성도님들이 역

사에 관심이 많았다. 교부-중세-종교개혁-근대-현대, 각 시대별로 5챕터로 구성되기 때문에, 각 시기를 5주 과정으로 진행했다. 예를 들어, 교부 시대가 5 챕터라면, 교부 시대를 5주 과정으로 하는 것이다.”

좋은 책을 얼마나 많이 읽는가 신앙의 깊이를 결정

그가 이 책을 선택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번째는 성경의 해석은 역사적인 컨텍스트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 또 다른 하나는, 신앙 생활의 성숙을 위해서 책임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는 “성경도 읽지만, 좋은 책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가 신앙의 깊이를 결정짓는다.”고 조언했다.

특히, 책 읽을 여유조차 갖기 힘든 이민자의 현실을 언급하며, “제가 이 책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역사 공부도 있지만 책 읽기 훈련을 시키는 것이다. 이 책을 한번 읽고 난 다음에는, ‘기독교 강요를 읽고 싶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나온다. 독서에 자신감이 생긴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선배 목사님이 하신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며 그의 강의를 마무리했다.

“한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도들에게 성경을 너무 많이 가르치면 안 된다. 성도들이 너무 똑똑해지면 설교하기가 어려워진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한다. 목회를 하며 느낀 것은,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알수록 설교의 폭이 더 넓어진다는 사실이다.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깊이 있는 본문은 더욱 다루기 힘들다. 그러나 성도들이 말씀을 꾸준히 읽고 이해가 쌓이면, 보다 다양한 본문과 깊이 있는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늘 성도들에게 강조한다.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성경을 잘 알아야 한다고. 성도들이 말씀을 바로 알면, 목회자인 저 역시 빠르게 설 수밖에 없다. 잘못된 해석이나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올림픽장로교회 이수호 목사는 소그룹 방법론을 넘어 성도들의 신앙 태도를 짚으며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이 목사는 먼저 소그룹 사역의 현실적인 어려움부터 솔직하게 나눴다. 그는 “소그룹을 하다 보면 반드시 ‘빌런’이 등장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모임 내내 자기 이야기만 이어가는 사람, 모임이 시작되자마자 개인적인 가정사를 쏟아내며 분위기를 장악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소그룹의 균형이 무너지고, 다른 성도들의 참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어 그는 한인교회의 흐름을 돌아봤다. 1990년대 초반, 이민교회는 새신자가 꾸준히 유입되었으나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고 진단했다. 한인타운 특유의 잦은 이동성과 관계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성도들은 점점 방어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고, 교회 역시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방식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 3면에 이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소망

2026 생수 춘계 부흥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치고 힘든 이민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메시지가 우리 삶의 진정한 회복과 형통을 선포합니다.

말씀의 깊은 통찰력으로 울림을 주시는 노진준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생수의강 선교교회에서 은혜의 잔치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오셔서 생명수와 같은 위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집회 일정 및 주제

- 3월 27일(금) 저녁 7:30 | 형통한 삶을 삽니다 (창 39:1-6)
- 3월 28일(토) 새벽 6:00 |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후 4:1-4)
- 3월 28일(토) 저녁 7:00 | 본향을 바라봅니다 (렘 29:5-7; 31:23-25)
- 3월 29일(주일) 1부 7:45 |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롬 5:1-6)
- 3부 11:30 | 헌신합니다 (요 11:11-16)

제작 세미나

- 3월 29일(주일) 오전 9:30~10:30 | “직분이란 무엇인가?”



담임 최형규 목사 19200 Pioneer Blvd, Cerritos CA 90703 문의:562-653-0168



강사: 노진준 목사 (PCM 공동대표, 순회 설교자)

LA·동부·OC·베이커스필드, 연합 속 부활의 주님 만난다

남가주 한인 교계는 2026년 4월 5일(주일) 새벽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를 각 지역에서 드린다.

LA 지역-평화교회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김은목 목사)가 주관하는 LA 지역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는 오전 6시, 평화교회(김은목 목사, 2538 W Pico Blvd, LA)에서 드린다.

한편, 이에 앞서 선교를 위한 '3월 연합기도성회'가 3월 29일(주일) 오후 4시, LA 소재 주님의 교회(최훈 목사, 333 S. Western Ave.)에서 열린다.

오는 6월 2일(화) 오전 10시에는 샘 레이너 목사 초청 세미나가 열린다. 장소는 미정. 샘 레이너 목사가

강사로 나서 미주 한인교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문의: 송금관 목사, 213-393-9136

LA 동부 지역-선한청지기교회

LA 동부 지역은 오전 5시 30분, 선한청지기교회(송병주 목사,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본당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기념한다.

권혁빈 목사(씨드 교회)가 사회를 맡고, 최현규 목사(주님 Church)가 설교한다. 대표기도는 홍충수 목사(나성한미교회), 봉헌기도는 박진석 목사(브릿지교회)가, 광고는 송병주 목사(선한청지기교회), 축도는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가

말한다.

OC 지역-갈보리선교교회

OC 지역 연합 새벽 예배는 오전 5시 30분, 갈보리선교교회(심상은 목사, 8700 Stanton Ave, Buena Park)에서 열린다. OC 기독교교회협의회, OC 목사회, OC 여목사회, OC 장로회협의회, OC 기독교전도회연합회 등 다섯 기관이 공동으로 준비했다.

조진용 목사(남가주 바인교회 담임, OC 교협 부회장)가 사회를 맡고, 김영수 장로가 대표기도를 인도한다. 갈보리선교교회 성가대가 특별 찬양을 드리며, 한성준 집사가 성경 봉독을 한다.

설교는 심상은 목사가 전하며, 목

사가 특송으로 은혜를 더한다. 예배는 민경엽 목사가 축도로 마친다.

부활절 연합 예배 외에도 OC교협은 올해 다양한 사역을 추진한다.

▶ 부활절을 앞두고 3월 30일(주일)에는 고난주간 십자가 순례를 진행한다. 오전 8시 선착순 40명이 은혜한인교회 출발해 리버사이드 카운티 마운트 루비두(Mount Rubidoux)에서 행진한다. (문의: 윤우경총호위원장 213 500 5449)

▶ 제 5회 차세대 목회자 21인 초청 OC 영적대각성 새벽기도회를 8월에 개최한다. 올해에는 작은 교회 목회자뿐 아니라 큰 교회 목회자들도 초청하며, 이어서 목회자 세미나가 열린다.

▶ 이스라엘 감람산 대합창제. 이

스라엘 감람산에서 합창을 드리며 제림 소망을 나눈다.

▶ 가을 행사로 사모 블레싱 나이트, 차세대 브릿지 콘서트(1세대와 2세대를 연결하는 열린 음악회 형식, 한국어·영어 병행 사회로 젊은 후세대를 위한 찬양 집회) 등을 기도하며 계획하고 있다.

베이커스필드 지역- 베이커스필드 ANC 온누리교회

베이커스필드 지역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는 4월 5일 주일 오전 6시에 베이커스필드 ANC 온누리교회(박성호 목사)에서 드린다. 이 연합예배는 베이커스필드 한인 교역자협의회가 주관한다.

주디 한 기자

“예배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훈련되어 제자파송”

연약교회 임직 감사예배, 전임 담임 구진모·오경환 목사 함께해

캘리포니아 포모나에 위치한 연약교회(Covenant Korean Church, 장수영 목사)가 지난 3월 22일(주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집사 임명, 명예권사 추대 및 권사 임직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번 예식은 연약교회의 전임 담임인 구진모 목사와 오경환 목사가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일꾼들을 함께 축복하며 감동을 더했다.

장수영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1부 예배는 안병돈 장로의 대표기도에 이어 구진모 목사가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본문으로 '영적 리더의 섬김'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구 목사는 진정한 동력은 구원의 확신과 감격에서 우러나오는 감사함을 강조했다.

특히 구 목사는 "섬김의 자리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경쟁 사회의 산물인 승리주의와 영웅



연약교회 임직 감사예배

주의"라며, "나를 드러내고 반드시 이기려 하는 영웅주의에 불들려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하나님의 나라는 거창한 성과가 아니라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을 통해 자라난다"며, 사람의 인정이 없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섬김에 충실할 것을 권면했다.

이어 진행된 임직식에서는 전·

현직 담임목회자들이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했다. 집사 임명식에서는 오경환 목사가, 명예권사 추대식에서는 구진모 목사가 기도를 맡았으며, 권사 임직식에서는 현 담임 장수영 목사가 직분자 28명들을 위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충성스럽게 헌신하기를 간구했다.

특히 이날 권사로 임직한 김병희

권사는 암 투병 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임직식에 참여했다. 고난 속에서도 직분을 귀하게 여기며 기쁨으로 임직을 받는 모습은 공동체 전체에 헌신의 참된 의미를 일깨워주었다.

축사를 전한 오경환 목사는 임직자들을 향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겸손의 사랑을 실천하며, 보이

지 않는 곳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로 섬길 것"을 당부했다. 그는 "성도의 아픔과 슬픔을 살피고 함께 울어주는 긍휼의 마음이 공동체의 생명수가 될 것"이라며, 갈등의 상황에서도 비판보다 기도로 중보하며 '화평의 사도'가 되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예배의 마지막 순서로 시무권사들이 특송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과 감사함으로 연약교회를 세워갈 것을 다짐했다. 모든 순서는 장수영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되었다.

장수영 목사는 "전임 목사님들의 기도와 헌신을 이어받아, 오늘 세워진 일꾼들과 함께 지역 사회와 다음 세대를 섬기는 사역을 더욱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연약교회는 이번 임직식의 은혜를 이어가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개최한다. 김민선 기자

→ 2면에 이어서

이 목사는 오늘날 가장 큰 변화로 '듣는 방식의 변화'를 지적했다.

그는 "사람들이 말씀을 전체 맥락으로 이해하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며 이를 '체리 피커(Cherry-Picker)', 즉 '말씀 수집가'라고 표현했다. 특히 그는 "듣는 귀가 바뀌지 않으면 교회 안의 만남도 세상의 모임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하며, 소그룹 문제를 단순히 리더의 역량 문제로 돌리는 시각에 대해

경계했다.

그 대안으로 제시한 방법 중 하나는 '설교 한 문장 요약'이다. 성도들이 주일 설교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도록 하는 이 방식은, 말씀을 끝까지 집중해서 듣고 맥락을 이해하도록 돕는 훈련이다.

또한 그는 유대인 교육 방식인 '하브루타'를 언급하며, 말씀을 대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대인들은 정답을 주입하기보다,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나눌 것인가에 초점을 둔다는 것이다. 이 목사는 "말

씀의 내용을 가르치는 것보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소그룹의 목적에 대해서도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다. "소그룹은 교회의 외적 부흥을 위한 수단이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라며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소그룹 사역이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방향

성과 철학이 담긴 사역임을 강조하며, "지금은 방법보다 본질을 다시 세워야 할 때"라고 전했다.

이날, 강의에 이어 신선목 교수는 '소그룹 사역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했다.

교회 선정 기준은 (1) 현재 소그룹 사역을 하고 있고, 더 개발할 예정이며, (2) 미주 한인교회에 한정한다. (3) 담임 목회자나 소그룹 전담 교역자가 책임을 갖고 진행하며 (4) 기독일보와 월드미션대학교가 공동 심사한다. 선정된 교회를 대상으로, 4월 22-5

월 20일까지 매주 수요일 목회자 포럼이 진행되며, 소그룹 훈련 워크숍과 1박 2일 수련회(7월 13-14일) 등이 진행된다. 12월 말까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WMU 소그룹 사역 센터 웹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처 : sgmc@wmu.edu, 마감 2026년 4월 6일

문의 : 213 739 0403(기독일보), 213-388-1000 (월드미션대학교 소그룹 사역 센터)

웹사이트: https://sgmc.wmu.edu/

2026년 부활절 연합예배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25~26)

사 회 : 권혁빈 목사 (씨드 교회)
설 교 : 최현규 목사 (주님 Church)
대표기도 : 홍충수 목사 (나성한미교회)
봉헌기도 : 박진석 목사 (브릿지교회)
광 고 : 송병주 목사 (선한청지기교회)
축 도 : 고승희 목사 (아름다운교회)

2026년 4월 5일(주일) 5:30AM

장소 : 선한청지기교회 본당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동부지역 기독교교회협의회

ANC 30주년 기념 칸타타 “우리의 관객은 단 한분, 예수”

지난 3월 20일(금) 저녁 7시 30분 ANC 온누리교회는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며 칸타타 오라토리오 “감람산의 그리스도” 공연을 개최했다.

공연에 앞서 김태형 목사는 이 공연에 담긴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감람산의 그리스도, 이것이 ANC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우리 모두에게 관객은 단 한 분이다. 우리 관객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 예수님이시다. 그분 때문에 노래하고,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그분 때문에 회개하며, 그분에게로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춰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빛어



ANC 온누리교회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칸타타 오라토리오 “감람산의 그리스도”를 공연했다. © ANC 온누리교회

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는다.”

이어서 유성현 장로가 공연을 위해 기도했다.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이 저희를 위하여 몸속에 겪으신 그 아픔과 고통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놀랍고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체감하며 그 가운데 깊이 잠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연은 정병화 목사의 나레이션으로 문을 열었다. 그는 유클절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겻세마네 동산으로 향하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 기도하시던 모습을 묘사했다.

그리스도의 내면의 갈등을 담은 서곡의 장중하고 암울한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테너 전승철이 서창(여호와 내 아버지 날 위로하시고 힘 주소서)을 불렀고, 소프라노 전혜영은 천사의 서창(하나님, 아들 여기에 있으니)을 불렀다. 예수님의 고뇌와 결단, 체포의 과정이 칸타타로 표현되었으며, 테너 김진수는 베드로의 노래(피끓는 나의 마음을)를 불렀다.

마지막 찬양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50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며 공연을 마쳤다.

주디 한 기자

생수의강선교교회 29주년 임직예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라”

생수의강선교교회가 창립 29주년을 맞아 감사예배 및 임직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서는 안수집사 3명과 권사 11명이 새롭게 임직했다.

예배는 1부 감사예배와 2부 임직예배로 진행됐다. 감사예배에서는 안동주 목사가 “누가 두루마리를 펼조”(계 5:1)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그는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하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는다. 어린양 되신 예수님은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그는 “요한은 보좌와 두루마리를 보았다. 그러나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어 통곡했다. 만약 인을 펼 자



가 없다면 이 세상은 영원히 소망 없는 세상이 되기 때문”이라며 “그 때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음성이 들렸다”며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계신다. 천국에서 유일하게 상처를 가진 분이 주님이라는 말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랑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했다.

안 목사는 하늘에서 어린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장면을 설명하며 “어린양이 합당하신 이유는 첫째,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이고 둘째,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며 동시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성도들의 삶의 정체성에 대해 “우리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있는 제사장이다. 우리의 말 한마디와 표정 하나, 태도 하나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된다”고 말했다.

또 “하늘에서는 어린양 되신 예

수님을 향한 찬양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의 삶은 하늘의 예배와 땅의 삶을 연결하는 삶”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로, 증인으로, 빛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며 설교를 마쳤다.

이어진 임직예배에서는 안수집사 임명과 권사 임명이 진행됐다. 임직자 서약과 성도 서약, 안수기도와 임직패 증정이 이어졌으며 교회 새 직분자들의 헌신을 축복했다.

이날 예배에서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특별찬양이 있었으며, 축사는 김대섭 목사(총회 상임총무)가 전했다. 최형규 목사의 축도로 예배가 마무리되었다. 토마스 맹 기자

“찬양 한 곡이 아이티·우크라이나 아이들에게는 생명의 양식”

“선교 합창단이 부르는 한 곡의 찬양이 선교지의 굶주린 아이들에게는 한 끼의 양식이 되고, 배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미래를 꿈꾸는 기회가 됩니다.”

월드쉐어USA(대표 강태광 목사) 주사랑 여성 합창단이 지난 3월 21일(토) 오후 6시 미주 평안교회에서 ‘제3회 정기 연주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무대는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한 구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



연됐다. 지휘자 문혜원의 지휘와 김현아의 반주로 시작된 1부 순서는 강순영 목사의 개회 메시지, 월드쉐어

USA 이사장 이종용 목사의 축복 기도에도 이어, ‘주 함께 살리라’, ‘주님은 옹호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등 영성 깊은 합창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열었다. 특히 블레싱 여성 합창단이 찬조 출연하여 연주회의 열기를 더했다. 2부에서는 ‘인생’, ‘요계벧의 노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를 통해 위로를 전했다.

강태광 목사는 월드쉐어USA의 사역을 소개하며, 작은 비움이 선교지의 생명과 희망의 씨앗이 된다고 말했다. 3부에서는 ‘어느 봄날’

과 ‘이 믿음 한눈 팔지 않으리’를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바이올린(Andy Eunsoo Park)과 드럼(Paul 서문)의 협연이 어우러진 이번 연주회를 통해 모인 기금은 우크라이나 전쟁 고아와 미망인 지원을 비롯해 아이티, 수리남, 도미니카 공화국의 소망학교 운영에 사용된다. 한편, 주사랑 여성 합창단은 매주 목요일 올림픽 장르 교회에서 연습하고 있다. 며, 현재 신입 단원을 모집 중이다. (문의: 323-630-7333) 조셉 리 기자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
 34191 Harvard rd Newberry springs ca 92384

(주)대원 전자동 시설로 만든 왕김밥 4종
 새우튀김 김밥/매운 오뎅 김밥/참치 김밥/야채 김밥
교회 스페셜 무료 딜리버리
 10pcs 한줄 \$4.50 60줄 이상 주문가격
주문의 949-330-9033

창립 19 Years 주년
동부사랑의교회
임직 및 축대 감사사예배
 2026.4.5(주일) 오후 4시
 동부사랑의교회 사랑채플

장로임직 김크리스 박충권 정진상 한용섭
안수집사 고금호 김홍수 김휘경 맹재열 박승수 신원재 안태용 엄기현 이준영 차흥주 호기화 흥제임스
시무권사 고영화 김경희 김성은 김유니 김혜숙 박선아 양성희 양진아 오명화 오선영 유영신 윤신애 이주디 장미아 조수정 조예리 차케이 호종호 흥제니
명예장로 김강영 김홍철 이준영 황인규
명예권사 김영자 민명애 박경옥 박효혜 이귀나 이명순 전은선 최유라

동부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우영화 909) 590-3722
 East Sarang Community Church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센터메디컬그룹

지역사회를 움직이는 힘!

그 중심에 [당신]이 있습니다

건강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의료그룹

지역사회 건강 증진과 생활 문화 활동 활성화

회원 전용 무료 병원 라이드 서비스 제공



문의연락 | (888) 847 - 3098

센터메디컬그룹은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 의료 메디컬그룹 (IPA) 입니다.

이승만 건국대통령 탄신 151주년... “하나님께 드린 기도로 시작된 나라”

기념식 정동제일교회서 열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국 정신 재조명

이승만 건국대통령 탄신 151주년 기념식이 26일 오후 정동제일교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사)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가 주관하고 국가보훈부가 후원해 마련됐으며, 참석자들은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을 되새겼다.

이날 기념식은 1부 개회식과 2부 예배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 개회식은 문무일 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됐으며, 도종현 장로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에 이어 김남수 회장의 기념사, 주요 인사들의 축사, 감사패 증정, 유족 인사 순으로 이어졌다.

◇ 건국 정신 강조한 기념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

기념사를 전한 김남수 회장은 대한민국 건국의 의미를 강조하며,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신앙과 국가관을 조명했다. 그는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시작됐다”며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대한민국은 결코 꺾일 수 없는 나라”라고 밝혔다.

이어 이승만 대통령이 1957년 신



이승만 건국대통령 탄신 151주년 기념식에서 관계자들이 국민의례를 진행하고 있다.

년 회호로 남긴 ‘부국강병 영세자유’를 언급하며, 국가의 번영과 안보가 자유를 지키는 핵심 가치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승만 건국대통령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현실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건국 대통령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의 100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건국 원훈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전했다.

◇ 정부·정계 인사 축사...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 가치 재조명 이날 축사에서는 이승만 건국대

통령의 업적과 대한민국의 발전 기반에 대한 평가가 이어졌다. 국가보훈부 장관의 축사를 대독한 이승우 서울보훈청장은 “정부는 이승만 대통령처럼 독립운동에 헌신한 분들을 끝까지 찾아 기억하겠다”며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에도 힘쓰겠다. 또한, 통합의 정신을 계승해 대한민국을 더욱 강건하게 발전시키겠다”고 전했다.

정운찬 상임고문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한미동맹, 농지개혁, 교육입국이라는 토대 위에서 성장했다”고 평가하며, 앞으

로는 ‘동반성장’이라는 새로운 시대 정신이 필요하다. 동반성장은 자본주의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원리”라며 국민적 참여를 당부했다.

김문수 상임고문은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건국 노선을 강조했다. 그는 “혼란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선택하고 지켜낸 것은 탁월한 지도력의 결과였다”며,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했다.

◇ 유족 인사와 다짐... “이승만 정신 계승 이어갈 것”

유족 대표로 나선 이병구 대표는 이승만 대통령의 생애를 회고하며, 대한민국을 위한 헌신을 강조했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들을 전향시켜 나라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인재로 만들고자 했다”며 “그 뜻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참석자들과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며 기념식의 의미를 더했다. 손현보 목사는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을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 교육과 기념사업에 힘쓰겠다”며, 건국의 의미를 계승하는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예배로 이어진 2부 순서... “이승만 대통령의 예언과 신앙 조명” 2부 예배는 송기성 목사의 기도로 시작돼 성경봉독, 축하 찬양,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설교를 맡은 박정근 목사는 ‘이승만 대통령의 3대 예언’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며, 공산주의의 몰락, 일본의 미국 침략,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역사적 통찰을 통해 오늘날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설명했다.

박 목사는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 교회 사랑을 바탕으로 선구자들을 기억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승만 건국대통령 탄신 151주년 기념식은 축도와 광고, 폐회 순으로 마무리됐다.

장지동 기자

동성혼 촬영 거부한 美 기독교 사진작가, 합의금 약 10억 받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루이빌에서 동성결혼식 촬영을 둘러싼 종교 자유 논쟁이 수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최종 합의로 마무리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최근 연방법원에 제출된 ‘합의서’를 인용해 루이빌시 정부가 사진작가 첼시

넬슨 측에게 변호사 비용 및 소송 비용 총 80만 달러(약 10억 원)를 지급하는 데 양측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양측은 “원고 측 변호사 비용과 각종 비용 및 경비 문제를 80만 달러로 해결했다”고 명시했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추

가 비용 청구 권리를 ‘재정구 불가’ 조건으로 철회했다. 특히 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미 내려진 영구적 금지명령은 계속 효력이 유지된다. 이는 루이빌시가 해당 조례를 넬슨에게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기존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다. 넬슨

은 성경적 결혼관에 따라 결혼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믿고 있으며, 루이빌시의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금지 조례가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표현을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조례가 미국 헌법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연방법원은 지난해 넬슨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가 해당 조례를 넬슨에게 적용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특히 2023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인 ‘303 Creative v. Elenis’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해당 판결에서 대법원은 정부가 창작자에게 특정 메시지를 표현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넬슨을 대리한 보수 성향의 법률 단체인 국제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개인에게 믿지 않는 메시지를 말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며 “이번 합의는 헌법적 자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례”라고 밝혔다. 신미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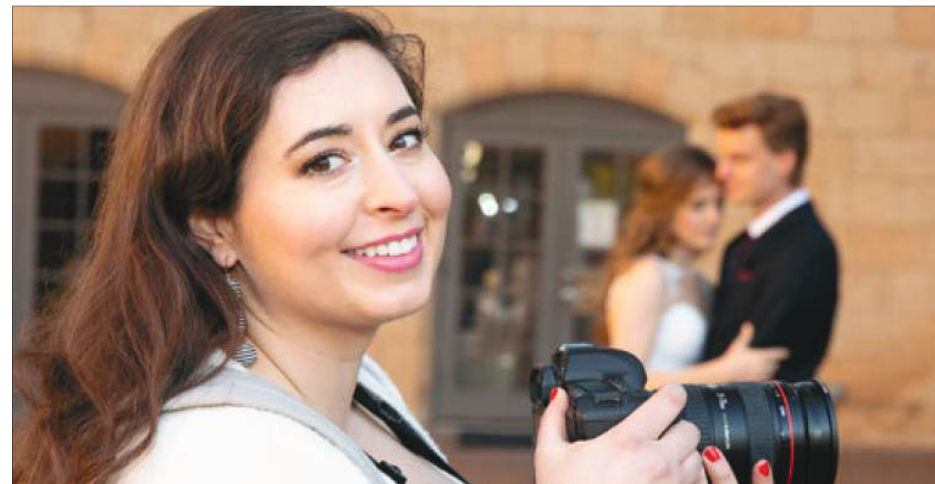


사진 작가이자 블로거인 첼시 넬슨. ©Courtesy of Chelsey Nelson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고승희, 김영길, 김중연, 김한우, 류종길, 민중기, 박기호, 송정명, 신성욱, 이상명, 이종용, 임성진, 정우성, 진유철, 한기홍

자문위원

강태광, 고광선, 고창현, 구경모, 구봉주, 국윤권, 김중규, 류용렬, 박은성, 박일서, 오명찬, 우영화, 최현규, 한현중, 써니킴

- 발행인 : 이인규
- 편집국장 : 맹창현
- 고문변호사 : 정찬용
-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daily.com
-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 이사장 : 폴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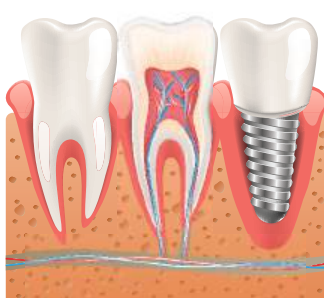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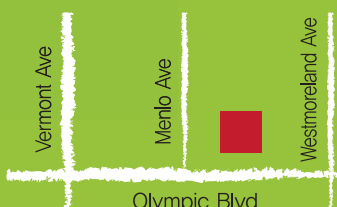
-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에스더 이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당신께 맞는 의사, 찾는 병원

모두 SMG에 있습니다

5,500명의 전문 의사와 다양한 병원 네트워크와 함께
당신의 건강을 지켜 드립니다

18개 연계 대형 병원

- UCLA
- 시더스-사이나이
- 할리우드 장로병원
- 세인트 주드
- 세인트 조셉
- 애너하임 리저널
- PIH 굿사마리탄 외

문의전화 _____
800.611.9862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카카오톡 채널에
방문하세요!

홍보대사 **고두심**



이 광고에서 사용된 지표는 SMG가 2025년에 남가주 지역의 한인 주치의와 전문의 네트워크 규모에 대해 조사한 내부데이터에 기반한 것입니다. 서울메디칼그룹은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다양한 건강보험과 함께 독립된 의사 네트워크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혜택과 네트워크 규모는 각각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헬스 플랜과 지역에 따라 다양합니다. 의료 서비스는 건강보험에 따라 제한, 제외, 또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메디칼그룹 800-611-9862로 문의하십시오.

AI 시대, 다음 세대를 위한 문화를 준비한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것

미드웨스턴 침례신학교 아시아부 박사원 디렉터 권혁수 교수 인터뷰

미주 한인교회들은 다음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 중이다. 청년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반백의 성도들만 남겨진 교회들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라는 중대한 질문 앞에 서 있다. 세대 불통과 세대 단절, 수직적 문화에 적응하기 힘든 젠지 세대(Generation Z, 1995년부터 2010년생까지)에, AI로 인한 급격한 변화까지 합쳐서 교회의 미래는 더욱 예측불허의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한인교회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건강한 세대교체가 가능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일까? 미드웨스턴 침례신학교 권혁수 교수는 '당회의 리더십의 위임', '당회의 밀레니얼 세대의 수용'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진단했다.

AI 논의, 실용과 추상의 양극단에 치우쳐

CTS 아메리카 대담을 위해 LA를 방문한 권혁수 목사를 만났다. 그는, 교회 안의 AI 논의가 '실용적인 논의'에 치우쳤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추상적인 논의에 치우쳐 있다며, 그것으로는 당장 교회가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AI에 대한 많은 논의들, 책이 쏟아져 나오는데, 설교에 AI를 어떻게 활용하나, 성경공부를 만들거나, 교회 행정에 활용하는 방법 같은 것이다. 그런데 실용적인 방법만으로는 이민교회가 안고 있는 고민에 대한 답을 주지는 못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학자들은 또 너무 깊은 얘기를 한다. 예를 들어, '인간이 생성형 AGI가 나오면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나' 같은 논의가 있다. 그런데 너무 추상적이고, 당장 현실이 힘든데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중간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 같다."

AI의 등장으로, '디지털 네이티브'인 다음 세대와, '아날로그 세대' 간의 간극이 커지는 가운데, 권혁수 교수는 이 간극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같은 KM 안에서 세대 격차

권혁수 교수는 미드웨스턴 침례신학교가 있는 캔자스 시티에 나타나고 있는 흥미로운 변화를 통해 이민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접근했다. "M세대(1991~96년생) 이후로는 기존 교회의 구조, 특히 리더십



권혁수 교수(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아시아 박사 과정 디렉터, 선교 및 교회학 교수)

이나 사회를 바라보는 방식, 교회가 전달해 온 메시지가 그대로는 충분히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M세대까지는 어느 정도 기존 방식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30대 이하 세대는 거리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한편, 제가 있는 지역 캔자스 시티 뿐 아니라 LA, 애틀랜타, 시카고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전통적인 교회 중심 모임이 아니라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연합해 예배드리는 모임들이 점점 활성화되고 있다. 이것은 다음세대들에게도 영적인 갈급함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다만, 그 갈급함을 채우는 방식, 즉 공동체를 형성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방식, 그리고 메시지는 이전과 달라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KM과 EM을 구분해왔는데, 이제는 KM 자체도 하나의 단일한 집단으로 보기 어려워졌다. 최근 이민 온 분들과 80-90년대, 혹은 60-70년대에 이민 온 분들은 같은 KM 안에서 전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 1세대 내에서도 40대 이상, 이른바 '아날로그 세대'와 그 아래의 '디지털 세대'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격차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아래 세대로 갈수록 더욱 급격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는 이러한 변화 가운데, 교회가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결국 "문화적 맥락화"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선교학에서 중요한 논의 중 하나는, 복음을 수용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 최소한의 문화적 적응만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특정 문화의 틀을 강요하기보다 복음의 본질은 유지하되 표현 방식은 유연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수직적 권위 중심 구조 VS 수평적 개인주의적 구조

그는 '현재 교회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논의로 이어나갔다.

"그런데 현재 교회의 경우, 여전히 50~60대 이상의 세대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문화 자체가 다소 수직적이며, 권위 중심적인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집단 중심적이고 위계적인 구조 속에서, 서열과 과정을 따라 성장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조직 안에서 아래 단계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는 방식이 일반적이었고, 그것이 사회적으로도 통용되는 질서였다."

치열한 경쟁 뚫고 대기업에 입사한 후 퇴사하는 GenZ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M세대와 Z세대에게는 더 이상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도 몇 년 전부터 이러한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많은 청년들

이 치열한 경쟁을 거쳐 대기업에 입사했지만, 2~3년 만에 퇴사하는 현상이 이어졌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위계적인 조직 문화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이제에는 오래 기다려도 자신의 차례가 오지 않는 구조 속에서 버티기보다, 자신의 열정과 강점을 바로 표현하고 의미 있는 일을 찾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와 같은 흐름은 이민교회나 한인교회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과거에는 교회 안에서 일정한 사역의 경로가 존재했다. 교육부전도사로 시작해 청년부를 거치고, 교구 목사로 이어지는 비교적 명확한 과정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2~3년 사이 한국교회에서는 목회자 수급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MZ세대 목회자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세워야 할지 고민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일반 성도들의 경우에도 20대, 30대, 40대 초반 세대는 교회의 의사결정에 대해 거리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한국 교회는 여전히 주요 결정이 당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방식은 젊은 세대에게는 충분히 공감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이들은 그들이 겪는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제안을 하지만 그들의 의견이 교회

의 전체적인 계획 속에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면서, 교회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거나 점점 거리를 두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회를 떠나기도 한다." 또 다른 한편, 교회를 떠나 자신들만의 예배 모임 같은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로 나타난다.

다음 세대로 주체성을 위임해야

세대 간의 간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답으로 그가 제시하는 것은 '주체성의 위임'이다. 그는 이러한 한인교회 내 구조적 변화에 더해,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공동체의 의미에 대한 재정의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접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핵심은 '주체성'을 다음 세대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에 따르면, 젊은 세대의 교회 이탈은, 그들 의견이 교회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데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실제로 한인교회를 보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다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마음의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는 사례들도 적지 않다. 이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주체성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강한 주체성의 이민 1세대 목회자 VS 기존 시스템 안에 조율 '후임 목회자'

그는 이민 1세대와 달리, 후임 목회자들이 '기존 시스템의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것이 1세대와 후임 목회자 사이의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이제 이 지점에서 사역자들의 고민이 시작된다. 이전 세대, 특히 이민 1세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교회를 세워 왔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만들어 가야 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강한 주체성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다. 교회를 어디에 세울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심지어 매뉴얼까지도 스스로 만들었다. 본인이 결정하면 그것이 곧 기준이 되었고, 그 결정에 공동체가 함께 따라가는 구조였다. 그런 의미에서 매우 강한 주체성을 가진 목회자가 가능했던 시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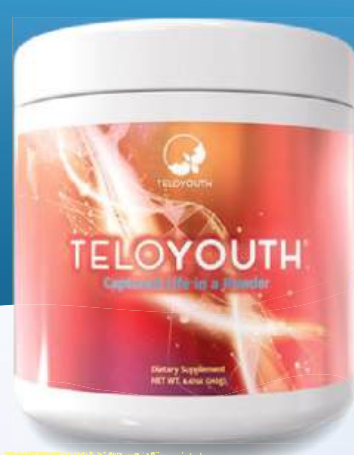
주디 한 기자 [다음호에 계속]

생명을 살리는 텔로유스

퇴행에서 재생으로! 노화에서 역노화로!

주요 라디오 · 신문이 주목한 텔로유스(TeloYouth) 젊음회복 프로그램

LA 라디오코리아, 라디오서울, 우리방송, CBS 기독교TV, NY 라디오코리아, NY K라디오, 애틀랜타 라디오코리아 등 주요 방송사와 중앙일보, 한국일보, 뉴욕일보, 타운뉴스, 교차로, 벨리뉴스 등 주요 신문사가 주목하고 있는 차세대 젊음 회복 기술, 텔로유스를 소개합니다.



이런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 120세까지 건강하고 젊게 사시고 싶은 분들
- 역노화 (Reverse aging) 기술력으로 10년이상 젊어지고 싶은 분들
- 밤에 자주 깨고 다시 잠들기 힘들/ 기운 없고 늘 피곤함
- 각종 염증으로 늘 고생함/ 스트레스를 못 이겨냄/ 의욕이 없고 우울함
- 장 트러블/ 소화력이 떨어짐/ 눈이 건조하고 침침함
-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짐/ 혈당조절이 힘들/ 통증에 시달림
- 몸의 여러 구조와 기능들이 만성적으로 고장나 고민하고 계신분들

퀀텀 젊음회복 6개월 프로그램 패키지 \$2,478



프로모션

\$2,478 패키지 구매시 텔로유스 파우더 한병(\$300)

건강의 '마스터 키', 줄기세포

텔로유스는

우리 몸의 골수에서 줄기세포 배출을 최대 3,600%까지 유도하는 10년 이상 앞서간 세포신호(Cell Signaling) 기반의 최첨단 생명공학 기술로, 몸 전체의 구조적 균형, 기능적 회복, 그리고 감정적 체계까지 근본적으로 되살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회복 프로그램입니다.

텔로유스의 핵심 특징

10년 이상 앞서간 최첨단 생명공학 세포신호 기술 골수에서 줄기세포 배출 최대 3,600% 유도 온몸의 구조 · 기능 · 감정 체계까지 재생 & 회복



www.TeloHealing.com

줄기세포 건강사업 코치 모집

- 21세기 세포신호 기술 기반 젊음회복 프로그램
- 세포신호 기술력 독점, 재구매율 91%
- 코치 교육 시스템 제공
- 월 \$10,000 이상 수입 가능

문의: 레이첼 건강 수석 코치

☎ 714-851-8035

中 당국, 가정교회 변호인 탄압 진에즈라 목사 사건 파장

중국 당국이 베이징 시온교회 지도자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교회는 중국 내 대표적인 개신교 가정교회로, 창립자인 진에즈라 목사는 5개월 전 당국의 탄압 과정에서 구금된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 장카이이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으며, 시온교회 변호에 참여한 다른 변호사들 역시 자격 정지 처분을 받거나 당국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회 측은 성명을 통해 “변호사들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정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목사의 딸인 그레이스 진은 변호사들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가족이 그의 상태를 파악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진 목사는 2025년 10월 중국 광시성 베이하이 자택에서 구금됐다. 같은 시기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여러 도시에서 시온교회 지도자와 성도 약 30명이 체포되거나 실종된 것으로 보고됐다.

현재 진 목사를 포함한 18명이 중국 남부 베이하이 구금시설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변호사 압박 조치는 이미 외교적·종교적 파장이 큰 이번 사건에 대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진 목사 가족은 미국과도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딸은 워싱턴 지역에서 미 상원 보좌관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아내 류춘리는 2018년부터 세 자녀와 함께 미국에 거주 중이다. 자녀들은 모두 미국 시민권자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미 의회 인사들은 진 목사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루비오 장관은 이번 탄압이 당의 통제를 거부하고 비인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적대적 태도를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모든 종교인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959년생인 진 목사는 2007년 미국 캘리포니아 풀러신학교에서 수학한 뒤 시온교회를 설립했다. 그는 1989년 텐안만 사

태에 참여한 이후 기독교로 개종했으며, 중국 가정교회 운동의 대표적 지도자로 알려져 있다.

시온교회는 중국 최대 규모의 지하 개신교 교회 중 하나로 성장했다.

당국이 2018년 베이징 예배당을 급습해 교회를 폐쇄한 이후, 시온교회는 온라인 예배와 전국 각지의 소규모 모임 형태로 활동을 이어왔다. 온라인 예배에는 줌, 유튜브, 위챗 등을 통해 최대 1만 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이 같은 온라인 성장세는 당국의 감시를 더욱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 중국 정부는 시민사회와 종교 활동에 대한 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중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국가가 승인한 종교 단체만을 인정하고 있다. 개신교의 경우 삼자애국운동, 가톨릭은 중국천주교애국회에 속해야 하며, 이들 역시 감시와 검열, 정치적 통제 아래 운영되고 있다.

수천만 명의 중국 기독교인들은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가정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 교회는 지속적인 탄압과 압박에 직면해 있다.

또한 당국은 일부 비공식 종교 단체를 ‘사교(邪)’로 규정하고 시민들에게 신고를 장려하고 있다.

교회 지도자들은 진 목사가 종교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유포한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9월 시행된 종교 활동을 국가 승인 채널로 제한하는 규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레이스 진은 부친이 구금 이전부터 지속적인 감시를 받았으며 출국이 금지된 상태에서도 원격으로 교회를 이끌어왔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비자 갱신을 위해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을 방문하려 했으나, 당국에 의해 저지당하고 공항으로 이송돼 수도를 떠나도록 강요받았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가족은 구금 이후 진 목사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그가 정식으로 기소됐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미경 기자

쿠바 교회 지도자 가족 구금 16세 목회자 아들 수감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쿠바에서 시민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회 지도자의 미성년 자녀가 시위 참여 혐의로 구금되면서 종교 자유 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23일 보도했다.

국제 인권단체 크리스천애틀랜드와이드(CSW)에 따르면, 독립교회 ‘티엠포 데 코셰차(Tiempo de Cosecha)’를 이끄는 엘리에르 무이르 아빌라 목사의 16세 아들 조나단 무이르 부르고스는 지난 16일 쿠바 시에고 데 아빌라주 모론에서 체포됐다.

아버지인 무이르 아빌라 목사도 함께 체포됐으나 같은 날 오후 5시 30분경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조나단은 3월 13일부터 14일까지 모론에서 발생한 시위에 참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계속 구금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바 시민 불안 배경 속 시위 발생...전력난·식량 부족 등 사회 위기 심화

CDI는 최근 쿠바에서 장기간의 정전과 식량 및 의약품 부족 등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며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모론 지역에서는 지난 14일 새벽 시위대가 쿠바 공산당 사무실을 파손하고 방화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 중 1명이 총에 맞았다는 보고도 있었다.

인권 활동가 마리오 펠릭스 예오나르트 바로소 목사는 이번 사건이 2021년 7월 전국적 시위 당시 체포된 로렌조 로살레스 파하르도 목사 사례와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조나단의 석방을 촉구했다.

CSW는 조나단이 심각한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어 장기 구금 시 건강 악화가 우려된다며 정부가 교회 지도자의 가족을 압박 수단으로 삼아온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교 활동 규제 속 목회자 조사...유튜브

성경 강의 이후 경찰 연행

CDI는 쿠바 마탄사스주 페냐스 알타스 지역에서 톨란도 페레스 로라 목사가 유튜브에 성경 강의를 업로드한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가 약 3시간 만에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CSW에 따르면 페레스 로라 목사는 ‘프레고네로 데 크리스토(Pregonero de Cristo)’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기적으로 성경 메시지를 전해 왔으며 촬영 중 주변 주민들이 모여 기도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목사의 아내는 체포 당시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했으며 영상에는 경찰이 목사를 순찰차에 강제로 태우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은 24시간 만에 3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목사의 행방과 상황을 묻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페레스 로라 목사는 2011년 목회 활동을 시작한 이후 지속적인 감시와 압박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라스 투나스 지역에서 사역하던 당시에도 국가 보안 당국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소환과 감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미등록 교회 규제 지속...종교 자유 문제 국제사회 관심

쿠바에서는 교회가 공식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국가 승인을 받아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교회에서 사역할 경우 감시와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쿠바 공산당 종교사무국 요청에 따라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국가가 인정한 교회와 목회자만 활동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 파트모스 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등록되지 않은 독립교회를 이끄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압박의 연장선이라고 평가했다.

최승연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섬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 토-일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회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세이하예배 오전 9:15) 새벽예배 (월-토) 오전 5시
3부예배(자세대예배) 오전 11:30 (화-토) - 오전 6:0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회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가정을 위로하며, 선교영광을 증행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 Egan 코너)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일씀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청소년예배 오전 10:50 토요일전사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 새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분당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분당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O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8 수요중보기도회 오전 10:00 분당

OMC 중보팀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OMC소망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466-1234 Email: om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애가 삼아보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교회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사랑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라티노 오후 5:0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교회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일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 (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토요일새벽예배 새벽 6:30
EM 주일예배 오전 10:30

한현중 담임목사

LA장로교회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 407-160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국교회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블러시(Calling), 고치(Healing), 기르메(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김은광 목사 백승유 목사

우리가교회
성도된 우리가 교회입니다

1060 Crenshaw Blvd(2F), L.A, CA 90019
T. (323)610-6989, www.woorigachurch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예배 오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형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윤성현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김정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김경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가명훈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KM장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범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org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에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방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C(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세리투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정유성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EM예배 11:00am
 주일2부예배 9:30am 수요일찬양회 7:30pm
 주일3부예배 11:15am 토요일예배 6:00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중새벽예배(은라인) 5:30am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org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이우호 담임목사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뷰구구재단: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지영함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College 주일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림학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회 오전 9:30(목)
 제자서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김한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말씀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8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박신웅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기서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9:15 토요일성경인사예배 오전 5:30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루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0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도반은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박훈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김종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일성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월/수/금) (토/주일) 새벽 6:00
 (월/수/금) (토/주일) 새벽 6:00

오렌지카운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주혁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2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신용환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교회학교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유치부, 원동부,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00 영어유치부, 원동부,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토요일성령예배 오전 6:0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00
 금요성령예배 오후 7:30(매달 마지막 금요일)

주님세운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15-4020

LA 동부 지역

유영담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집회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구경모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 오전 6: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최원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찬양회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유럽 전역서 반기독교 증오 범죄 증가... 2월에만 34건 발생

유럽 전역에서 교회와 기독교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한 반기독교 증오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유럽 내 기독교인에 대한 불관용 및 차별 감시기구(OIDAC Europe)는 2월 한 달 동안 총 34건의 반기독교 증오 범죄를 기록했으며, 이 중 11건은 방화 사건이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이미 높은 발생 건수를 보였던 1월보다도 증가한 것이다.

OIDAC에 따르면, 2월 발생한 사건에는 기물 파손 17건, 화재 관련 사건 11건, 신성모독 3건, 성물 절도 2건, 그리고 공공 행사에 참여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 공격 1건이 포함됐다. 국가별로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각각 7건으로 가장 많은 사건이 보고됐으며, 독일이 6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폴란드, 그리스 등에서 사건이 발생했으며, 영국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도 추가 사례가 보고됐다.

2월에 나타난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방화 공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이다. 프랑스 루아레 지역에서는 한 본당 교회의 제단이 고의로 불에 타는 사건이 발생했다. 네덜란드 에데에서는 5일 사이 세 곳의 교회에서 각각 화재가 발생해 기독교 시설을 겨냥한 반복적 공격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이탈리아에서는 펠리차노의 산 로코 교회에서 방화 시도가 있었으며,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는 한 남성이 교황 미사 중 인화 물질과 점화 장치를 소지한 채 출입을 시도하다 체포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스웨덴 스톡홀름 남부에서는 한 사제가 가톨릭 교회 방화 시도를 저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에서는 스코틀랜드 케말론의 역사적 교회 건물과 사우스윌의 킹스홀 감리교회에서 각각 방화로 추정되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2건의 사건이 기록됐다.

또 다른 특징은 상징적·전례적 가치를

지닌 대상에 대한 반복적 공격이다. 프랑스에서는 부아르루아 공동묘지의 성모 마리아상이 훼손됐고, 몽펠리에 대성당 역시 축제 기간 중 기물 파손을 입었다.

독일에서는 암헬 공동묘지 기도실 내 십자가가 불에 타고, 슈타이넨브론의 가톨릭 교회 내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영국 글래스고의 세인트 알폰수스 성당도 기물 파손 피해를 입었으며, 스페인 산티아고의 산타 수사나 교회에는 낙서가 발견됐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동일한 교회나 지역 기독교 시설을 단기간 내 반복적으로 공격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이는 지역 교회 공동체와 주민들에게 누적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영국 헤이스팅스의 한 교회는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스웨덴 팔세핑의 성 올라프 교회에서도 지속적인 훼손이 발생했다. 스페인 나바라 지역의 원죄 없이 잉태되신 수녀원 역시 출입구와 창문이 다시 훼손됐다.

폴란드 포즈난에서는 한 가톨릭 교회 외벽에 혐박성 낙서와 사탄 상징이 그려졌으며, 교회를 불태우겠다는 경고 문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폭력 사건도 발생했다. 독일 코블렌츠에서 열린 기독교 생명 보호 행사에서는 공격으로 인해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같은 폭력은 2월에 그치지 않았다.

OIDAC는 3월 초에도 오스트리아, 폴란드, 아일랜드, 스위스 등지에서 방화 사건이 이어졌으며, 스위스에서는 제단 위 성경이 불에 타는 사건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독일에서는 감리교회 앞에 설치된 십자가가 제거돼 쓰레기통에 버려졌고, 이탈리아 모데스토에서는 교회를 겨냥한 종이 폭탄 사건이 발생했다. 투스카니아에서는 교회와 종교 이미지에 충격이 가해진 사례도 보고됐다.

이미경 기자

지미 라이 딸 “부친, 수감 속에서도 하나님 향한 믿음 굳건”

수감 중인 언론 재벌 지미 라이(Jimmy Lai)의 딸이 미국 가톨릭 기도 모임에서 부친의 신앙이 여전히 굳건하다고 전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미 라이의 딸 클레어 라이는 최근 열린 2026 내셔널 가톨릭 기도 조찬에서 연설을 통해 “아버지는 자신의 삶이 더 이상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월터 E. 워싱턴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으며, 교황 레오 14세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면 메시지가 낭독되고 정치·종교 지도자 및 유명 인사들의 연설이 이어졌다.

클레어 라이는 지난 6년간 부친이 겪어온 어려움을 설명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친의 말을 인용해 “내 삶은 더 이상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며 “자기 부인을 통해 주님의 임재에 나아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한 라이의 삶을 소개하며, 12세에 공산주의 중국을 탈출해 홍콩에 정착한 뒤 성공을 이룬 ‘자수성가’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미국을 방문하면서 자유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고, 훗날 자신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왔음을 고백했다는 것이다.

라이 가족은 1997년 가톨릭 교회에 입교했으며, 이는 같은 해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한 시기와 맞물린다. 클레어 라이는 “당시 많은 이들이 자유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지만, 아버지는 그때 그리스도께로 나아갔다”며 “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신뢰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지미 라이의 수감은 2020년 중국 정부가 홍콩에 국가보안법을 시행하면서 시작됐다. 법 시행 한 달 뒤 그는 체포됐고, 이후 재판을 거쳐 현재까지 수감 및 독방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미 라이 ©wiki

클레어 라이는 “5년간의 독방 수감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당뇨와 심장 질환, 감염 등 여러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작고 어두운 감방에 수감돼 햇빛과 신선한 공기에 직접 접근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감 기간 대부분 동안 성찬과 고해성사, 미사 참여가 제한된 점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러한 제약 속에서도 아버지는 겸손한 섬김을 통해 신앙을 실천하고 있다”며 “자신의 고통을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하며, 주변 사람들과 심지어 자신에게 해를 끼친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클레어 라이는 “고통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며 “고난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부친의 석방 가능성에 대해 희망을 나타내며 “미국에서 많은 지지와 격려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부당하게 구금된 이들을 석방시킨 사례가 있는 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미 라이 역시 자유를 얻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미 라이는 2021년 같은 행사에서 교회의 사명과 공동체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크리스티피델레스 라이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미경 기자

라틴복음주의연맹 여성대회 아르헨티나서 개최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라틴복음주의연맹(AEL)이 제5회 국제대회 'Women in Victory'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하며 라틴아메리카 기독교 여성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번 대회는 AEL 여성위원회가 주관하고 파티마 올리바 박사가 총괄했으며, 지난 10일부터 14일(이하 현지시간)까지 진행됐다. 행사에는 12개 라틴아메리카 국가 대표단이 참석해 신앙과 공동체, 가정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회에는 AEL 회장 후안 크루스 셀라 마레 목사와 아르헨티나복음주의교회연합(ACIERA) 회장 크리스티안 후프트 목사가 참석했으며, ACIERA 여성 대표단이 현지 개최를 맡았다.

국제 기독교 여성 지도자 참여...신앙과 회복 메시지 공유

대회에서는 다양한 기독교 지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본회의가 진행됐다.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여성위원회 대표 스테이시 니콜 시몬스를 비롯해 막다 라미레스, 에스메랄다 모레노, 마이라 라미레스, 리히아 부르켈 등이 강연자로 참여했다. 또한 카르멘 데 카스트로와 글로리아 에르난데스, 나이두 비야마린 박사, 테레사 데 몬테로 교수 등이 발표자로 참여해 신앙과 공동체 회복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WEA 국제위원회 위원 마르타 호튼과 후안 크루스 셀라마레 목사, 파티마 올리바 박사, 크리스티안 후프트 목사도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시 공식 인정...라틴아메리카 기독교 여성 연합 의미 강조

이번 국제대회는 부에노스아이레스시로부터 공식 관심 행사로 지정되며 의미를 더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시 인적개발장관 가브리엘 세바스티안 드

라이다는 여성의 역할 강화와 가정 공동체 지원 측면에서 행사 의미를 강조했다. 행사 기간에는 각국 대표단이 국기를 들고 전통 의상을 선보이는 퍼레이드가 진행되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서로 다른 국가에서 온 기독교 여성 지도자들이 신앙 안에서 연합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주최 측은 'Women in Victory'라는 주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여성들을 변화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신앙 간증 도서 소개...회복과 희망 메시지 전달

행사에서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집필한 도서 세 권도 소개됐다. 라리 고메즈 목사의 자전적 간증서 'Lali: My Story of How I Chose to Smile'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선택한 삶의 이야기를 담았다. 미르타 치니에 목사이자 심리학자가 집필한 'Marks of Love'는 신앙과 관계 회복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

줄마 안투네즈 목사의 'After the Storm'은 강박장애(OCD)를 경험하며 얻은 신앙적 깨달음과 회복의 과정을 담고 있다.

교제와 연합의 장 마련...라틴복음주의연맹 사역 확대 기대

행사 기간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관광지 푸에르토 마데로에서 갈라 만찬이 열려 참가자들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악 사중주 연주와 함께 진행된 만찬은 참가자들의 교류를 더욱 깊게 했다. 대회 프로그램은 ACIERA 기독교 여성위원회 팀이 준비했으며 해외 참가자들을 환영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제공됐다.

참석자들은 이번 대회가 신앙 교제와 성경적 가르침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고 평가했다.

최승연 기자

베네수엘라 WBC 첫 우승 선수들 신앙적 고백 화제



베네수엘라를 미국을 3-2로 꺾고 사상 처음으로 WBC 정상에 올랐다. ©뉴시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베네수엘라 야구 대표팀이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결승에서 미국을 꺾고 사상 첫 우승을 차지하며 스포츠와 신앙이 함께 어우러진 순간을 만들어냈다고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베네수엘라를 마이애미 룬디포 파크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미국을 3-2로 제압하고 정상에 올랐다. 이번 우승은 경기 결과뿐 아니라 선수들이 경기 전부터 보여준 신앙적 모습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베네수엘라 대표팀은 대회 준비 단계부터 경기력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팀의 중요한 중심으로 삼아왔다. 선수들은 경기 전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러한 장면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며 관심을 모았다.

특히 주전 타자이자 3루수인 에우헤니오 수아레스가 동료 선수들과 함께 기도를 인도하는 모습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베네수엘라 대표팀의 신앙 고백은 대회 내내 이어졌다.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경기 전후와 훈련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팀 문화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흐름은 베네수엘라뿐 아니라 도미니카공화국 등 다른 카리브해 국가 대표팀에서도 나타났다. 일부 선수들은 무

릎을 꿇고 기도하며 참가의 의미를 되새기고,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점을 강조했다.

결승전은 치열한 접전이었다. 베네수엘라는 선발 투수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가 초반 4이닝 이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미국 타선을 효과적으로 봉쇄했다.

경기는 5회 윌리엄 아브레우의 솔로 홈런으로 베네수엘라가 2-0으로 앞서며 흐름을 가져왔다. 그러나 8회말 미국의 브라이스 하퍼가 2점 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는 2-2 동점으로 돌아갔다. 경기장은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승부는 9회에 갈렸다. 경기 전 기도로 주목받았던 수아레스가 결정적인 순간 해결사로 나섰다. 그는 적시 2루타를 기록하며 루이스 아라에즈를 홈으로 불러들였고, 베네수엘라는 3-2로 다시 앞서나갔다.

이후 마지막 아웃카운트는 삼진으로 마무리되며 베네수엘라는 극적인 승리를 확정지었다. 경기 후 수아레스는 우승의 의미를 하나님께 돌렸다. 그는 "하나님은 선하시며 모든 영광은 주님께 있다고 말하며, 경기 내내 하나님이 함께하셨다"고 밝혔다. 또한 "누구도 베네수엘라의 우승을 예상하지 않았지만 결국 정상에 올랐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아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고태형 담임목사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1부 07:30AM -1부 09:00AM -평일(화-금) 05:00AM
-2부 09:15AM -2부 11:00AM -토요일예배 06:00AM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대예배 11:00 AM Youth (8th ~ 12th) 11:00 AM
이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일예배 (수요일 7:30 PM)
유아, 유치부 (2-5세)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AM
영아부 (24개월 이하) 11:00 AM

장수영 담임목사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 (KM) 오전 10:30 중,고등부 (Youth) 오전 10:30 **최현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EM) 오전 10:30 대학청년부 (College) 오전 10:30
유년부 (K-2) 오전 10:30 중보기도 (Intercessory prayer) 오전 9:40
초등부(3-5) 오전 10:30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9 Email: jjoonm0623@gmail.com

예배시간 매주오전 11:00

강문수 담임목사

로렘나무교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3133 Le Parc #1003, Chino hills, CA 91709
T. (909) 519-0876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타주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후 12:30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후 12: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중,고등부(아기레슬) 오전11:00 **유경재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아부(베베(민물고기))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6:00
초등부 오전11:00 Youth 금요일(금) 오후7:30

나성복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이정현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한아침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주일 2부 9:30AM 수요일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오영찬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일(영양)예배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곽덕근 담임목사**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오후 12:30 **이건창 담임목사**
주일 EM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화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nta Clarita,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ool.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성경회 저녁 7:45 **이충환 담임목사**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토 오전 6:00
주일 3부 영아예배 오후 1:00

www.iccclca.org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T.(818)363-5887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박성호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베이크스필드 ANC은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오전 11:00 **송금관 담임목사**
주일 성경공부 풍요로운 삶 오전 9:30
화요일 3:30 기도회 매달 둘째주 오전 10:30 목요일 TEE 영육 Zoom 오후 7:30
목요일 거리전도 오전 10:00 한인타운 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

평강교회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T. (213)393-9136 http://pyongkang.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강일진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0:15 (한국어, 스페리니쉬)
주일예배 3부 오후 12:15 (한국어, 교육부)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임인철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V 89147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송상용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이정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성경기도회 오후 7: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7:00 E.lvkchurch@gmail.com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kc/index.php

장년예배 1부: 오전 9: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조용철 담임목사**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회 수요일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금요일 오후 7:00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fho@hotmail.com

주일 1부 예배 11:30 AM **임명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일예배 7:00 PM
새벽기도회 화-토 5:50 AM

라스베가스 우리종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woorijoeunchurch.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9시 **김광석 담임목사**
주일 2부 예배 오전 10:45 제자훈련 주일 오후 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금요일예배 저녁 7시
Youth 오전 10:45, 오후 1시 새벽예배 오전 6시(화-금)

라운드락교회

2011 Cade Lk, Round Rock, TX 78664
T.(512)228-1934 https://www.rkpc.net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크리스천 비즈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nwood Ave. Los Angeles, CA 90028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신가요?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축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치질! 수술없이 시술로도 가능한가요?

치질증상으로 항문소양증, 항문과 꼬리뼈 통증 출혈로 앉기도 두렵고 매번 화장실 가는것도 무섭다. **초강력 정력제 \$70**

3대째 가업 **영선한의원 213.380.7800**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미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찹쌀 모방떡,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OP SERVICE, INC. PLUMBING License# 1139798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40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캘리포니아 바이블 컨퍼런스 '70시간 기도회' 와 함께 개최

강사 지용주 목사, 박은성 목사, 켄 안 선교사, 김선익 목사

제 10회 캘리포니아 바이블 컨퍼런스(California Bible Conference, 이하 CABC)가 오는 7월 27일부터 30일(월-목)까지 3박 4일간 페파다인 대학교에서 열린다. “겨자씨와 하나님 나라(마 13:31-32)”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다윗의 장막 '70시간 연속 기도회'와 함께 진행된다.

CABC 측은 “이번 사경회를 통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부흥을 함께 소망하길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사경회에는 지용주 목사(시라쿠스한인교회)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박은성 목사(나성영락교회)가 로마서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나



캘리포니아 바이블 컨퍼런스, ©CABC

타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켄 안 선교사가 에스라-느헤미야, 김선익 목사(포월튼비치 한인제일장로교회)가 에스겔서를 중심으로 메시지를 나눈다.

주요 일정 및 강사
7월 28일(화) 지용주 목사(시라쿠스

한인교회) / 박은성 목사(나성영락교회)
7월 29일(수) 켄 안 선교사 (Exodus Academy, 성서역사학) / 김선익 목사 (포월튼비치 한인제일장로교회)
문의: (310)-702-2688, info@cabible.org 등록: www.CABIBLE.org

성령, 실천신학의 주체이자 원동력

월드미션대학교, 영성과 실천신학 학술 세미나 개최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는 지난 3월 17일(화) “영성과 실천신학”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고, 성령의 역할을 성서적, 신학적, 기독교 전통과 신앙 경험 안에서 조명했다. 이날 강연은 바이올라 대학교 산하 성령사역센터의 Founding Director를 역임한 오스카 멜로 박사(Dr. Oscar Merlo)가 맡았다.

멜로 박사는 성령의 역사가 실천신학의 주체이자 원동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실천신학은 방법론이나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분별하고 응답하는 신학”이라며, 그 분별과 실행의 핵심에 성령의 사역이



놓여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강연은 성령의 역할을 성경 본문에 대한 해석, 교회의 신앙 고백과 전통에 대한 성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입체적으로 풀어내며, 성령의 역사가 교회의 실천과 사역을 실제로 움직이는 동력임을 논증했다.

멜로 박사는 또한 성경에 대한 자신의 경험적 배경을 학생들과 나누며, 삶의 여정에서 성령의 인도와 깨달음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해 왔는지를 설명했다.

그는 성령의 인격적 역사와 임재를 크게 강조하며, “성령은 단지 ‘능력’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의 삶속에서 말씀을 조망하고 공동체를 세우며, 사역의 방향을 열어가는 하나님”이라는 점을 환기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학생들은 성령을 ‘사역의 배경’이 아니라 ‘사역의 중심’으로 재인식하게 된 점이 특히 인상 깊었다고 전했다. 한 참석자는 “실천신학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신학적 성찰이 필수라는 메시지가 크게 남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WMU는 실천신학과 영성, 교회 사역의 주요 주제를 다루는 학술세미나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학생과 지역 교회 리더들이 신학적 성찰과 현장 적용을 함께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면 기사(애즈베리 부흥)에 있어서 그러나 이러한 절망이 오히려 영적 개방성을 높이고 있다고 그는 분석했다. 앨런은 지난 2년 반 동안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며, 기독교 배경이 없는 젊은이들도 신앙을 갖게 되는 사례를 다수 목격했다고 밝혔다.

그는 “세상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경험한 후 지친 젊은이들이 다른 것을 찾고 있다”며 “그 절박함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신론자 부모를 둔 학생들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앨런은 Z세대의 정신건강 위기가 정체성과 가치에 대한 왜곡된 믿음과 깊이 연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람들은 어린 시절 형성된 거짓된 생각을 진실로 믿고 살아가고 있다”며 “그 생각을 말로 드러낼

때 치유가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개적인 고백이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젊은이들은 하나님을 원하고 있으며, 복잡한 설명 없이도 하나님의 사랑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한다”고 말했다.

앨런은 앞으로 교회의 미래에 대해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Z세대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동받아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경험을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ADU 전문

리모|델링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시공

Solar & Roof

집수리 일체

- 1~2명이 일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2~3명이 조를 이루어 Crew가 일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 Kitchen팀, Bathroom팀, ADU 전문, Roofing팀, Solar 설치팀, 마루시공팀, Carpentry팀, 전기팀, Plumbing팀, Window팀, Concrete Stucco팀, 철공팀, 페인팅전문팀, 디자인설계팀
- (하청없이 완전 전문가 Crew로 구성)**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www.kurbanbuilders.com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www.en.kurbanlike.com

“26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바로** 상담해 보세요”

K-Urban Builders
K-Urban Like CSLB # 854389

견적 상담 **213-310-1800**
LA 2621 W. Olympic Blvd. #205 Los Angeles, CA 90006

견적 상담 **213-798-22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Show Room

강준민 칼럼

하나님은 깨어진 사람을 사용하신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사람은 깨진 그릇을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깨진 그릇을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사람을 쓰십니다.

깨어짐은 부서짐을 의미합니다. 부서짐 속에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흙이 부서져 곡식을 낫니다. 곡식이 부서져 빵이 됩니다. 빵이 부서져 우리 몸의 에너지가 됩니다. 포도는 으깨져야 포도주가 됩니다. 장미도 으깨질 때 향수가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숙한 인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과정을 통과할 때 비로소 성숙해집니다.

생명의 세계는 우리에게 한 가지 영적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풍성한 생명은 언제나 부서짐을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잉태하고 열 달이 지나면 출산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자궁이 열리고 양수와 피가 흐르며 새로운 생명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고귀한 생명은 쉽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삶도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지고 상한 마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시 51:17).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의 비유를 통해 깨어짐의 신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 12:24). 깨어짐의 역설입니다. 밀알의 껍질이 땅속에서 깨어질 때, 씨앗 속에 담긴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싹을 틔우고 결국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깨어짐이 없다면 열매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연약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깨어짐을 통과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강한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일합니다. 그러나 깨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후 12:9).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강함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약함 속에서 온전해집니다. 약함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영성 훈련은 약함을 가꾸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깨뜨리십니다. A. W. 토저는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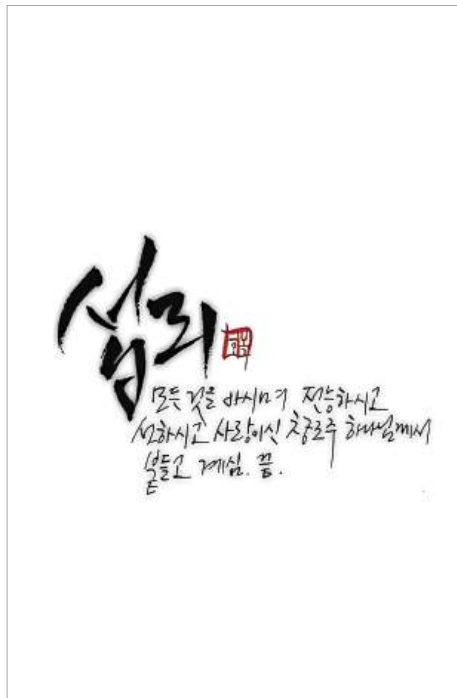
나님은 우리를 크게 사용하기 전에 먼저 깊이 상하게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찰스 스펀전은 “주님은 고난의 산지에서 가장 훌륭한 군사를 얻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은 한결같이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고난을 통해 깨어졌습니다. 고난을 통해 겸손해졌습니다. 고난을 통해 온유해졌습니다. 고난을 통해 유연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난을 통해 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깨뜨리심은 결코 망가뜨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정확합니다. 어느 정도, 어느 시점에서 깨뜨려야 하는지를 아십니다. 우리는 깨어짐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깨어짐이 없이는 깨달음도 없습니다. 깨어질 때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무지를 밝혀 주시는 빛입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말했습니다. “상처 난 틈으로 빛이 들어온다.” 깨어진 틈으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옵니다. 팀 켈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금 간 그릇을 통해 가장 밝게 빛난다.” 우리의 깨어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막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문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반석이 깨어질 때 생수가 흘러나온 것처럼,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랑은 때로 자신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값진 향유를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부어 드렸습니다. 옥합이 깨질 때 향기가 퍼졌습니다. 이 여인은 옥합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자신을 깨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을 하실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가난을 통해, 실패를 통해, 질병을 통해, 갈등을 통해 깨어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깨어짐 속에서 은혜가 자랍니다. 깨어짐 속에서 성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사람을 통해 완전한 일을 이루십니다. 깨어짐을 통해 더욱 존귀하게 쓰임 받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시길 빕니다.



진유철 칼럼

확실성이 아니라 믿음이 먼저다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세상은 확실성을 추구합니다. 온갖 정보를 동원하고, 힘 있는 권력의 줄을 붙들고, 이 사람 저 사람, 이것저것을 동원하여 확실한 길을 가려고 애를 씁니다. 종교에서도 이 단일수록 확실성을 추구하여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의 해석을 딱딱 맞춥니다. 성경대로 해석하지 않지만 확실하게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미

혹을 당합니다. 신앙은 상황을 확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믿음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의 상황은 확실했습니까? 오히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야 했고, 가뭄과 흉년의 땅에서 불확실한 길을 믿음으로 가야 했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좋아 보이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 사라를 빼앗기는 낭패를 만나지만, 건지시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여 믿음을 쌓아가게 되었습니다. 흠 잡힐 것 없었던 다니엘의 상황은 확실했습니까? 불 풀무나 사자 굴에 들어가며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을 만나지만 기도로 믿음을 쌓으며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언제 확실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아시아로 가고자 해도 유령으로 가라하시니, 로마로 가라해 놓고 거친 바람과 풍랑으로 불확실한 상황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늘 주님 은혜 안에서

믿음을 쌓아가므로 더 깊고 큰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즘은 교회 생활을 오래할수록 상황 판단은 빠르고 아는 것은 많아졌는데도 오히려 믿음은 줄어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확실하게 하는데 너무 쫓겨서 하나님을 알 믿음의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신학교를 다니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시험과 숙제에 쫓겨 믿음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직분자가 기도할 시간이 없고 신학생이 성경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넘치는 정보로 원수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위해서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 영적 습관을 반복하는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매일 매일의 예배 성공이 쌓이고, 한기 다말이 쌓이고, 감사노트와 열품중의 기도가 쌓이는 사람이 이깁니다. 혹시 ‘그런 작고 평범한 일이 어떻게 승리를 가져올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아닙니다. 0.1cm 종이

는 아주 작은 것인데, 이것을 30번 접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놀랍게도 1,073km (0.1cm x 2의 30승 = 107,374,182.4cm = 약 1,073km) 종이 30장의 두께가 아니라, 종이를 반으로 30번 접었을 때의 두께입니다. 종이를 반으로 접으면 2장이고, 또 반으로 접으면 4장, 또 반으로 접으면 8장..... 이렇게 2배씩 증가합니다. 결국, 종이를 30번 접으면 종이의 장수는 2의 30제곱이 되어 엄청난 두께가 됩니다. 1명으로 시작하여 3명에게 전해지는 아이스 버킷 챌린지가 10일 지나면 무려 88,573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처럼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도 믿음을 쌓아가는 일이 되면 그 영향력으로 세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찾을 수도 붙잡을 수도 없는 세상의 확실성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먼저 쌓아가는 승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롬!

집안의 대를 이어 나가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할머니 손 맛 그대로!
48시간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 맛!
최고급 고기만을 엄선!

송영 투크 설렁탕
단체주문 환영
T.(213)277-1339

2717 W Olympic Blvd. #108 LA, CA 90006(구) 베버리순두부 자리

2026학년도 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청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과목당 \$100씩으로 청강하실 수 있습니다.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사과정(B.Th)	목회학석사과정(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439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20

HYUNDAI
GETAWAY
SALES EVENT

PH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Happy
St. Patrick's
Day

새봄맞이 세일즈 이벤트



NEW 2026 HYUNDAI
Palisade
Calligraphy



NEW 2026 HYUNDAI
Elantra
Hybrid

0%

APR Financing
(차종에 따라서)

60개월까지 할부 가능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가능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90 days first payment (첫 90일간 납부 유예)



NEW 2026 HYUNDAI
Ioniq 9
Limited



NEW 2026 HYUNDAI
Santa Fe
Calligraphy



NEW 2026 HYUNDAI
Ioniq 5
Limited RWD

함께 일할 세일즈맨 구합니다!

한인 메카닉 서비스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Frank Kim 323.823.0682



Sean Kim 213.605.2886 Jae Lee 714.319.4611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HYUNDAI
1-888-644-7114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김영한 칼럼

부활하신 예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심(V)



김영한 박사
기독교학술원장
살롬나비상임대표

예수의 부활은 제자들이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예기(豫期)를 깨뜨리고 실제로 일어난 경악(驚愕)의 사건이었다. 예수는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언했으나 제자들은 예수의 체포와 더불어 다가온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서 스승의 예고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고백이 있는 후에 예수는 이미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하게 될 수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예고하셨다.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사장에게 살아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마 16:21). 그러나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의 예고(豫告)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베드로의 답변이 이 사실을 알려준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마 16:22).

이처럼 죽음에서 예수가 부활한다는 것은 제자들이 미리 듣기는 들었으나 막상 스승이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에서 돌아가시자 절망과 좌절 속에 빠진 나머지 잊어 버리고 전혀 예견치 못한 사건이었다. 그러므로 신앙 복음서 제자들이 기록에 의하여 우리는 예수의 부활 사건을 다음과 같이 5가지 특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 다섯 가지는 첫째, 전혀 예견치 못한 사건, 둘째, 몸의 부활, 셋째, 신앙의 눈으로만 알게 됨, 넷째, 예수 십자가 죽음을 대속사건으로 증시, 다섯째, 유일무이한 새로운 것이다.

1. 전혀 예견치 못한 사건
첫째, 이 사실은 제자들이 전혀 예견치 못한 사건이었다.

요한은 다음과같이 기록하고 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러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

사가 예수의 시신(屍身)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 편에, 하나는 발 편에 앉았더라"(요 20:11-12). 여기서 마리아는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그가 부활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천사들이 묻는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한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요 20:13).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천사들이 부활의 사실을 설명해준다. 여자들은 두려워 하여 얼굴을 땅에 댄다. 두 사람이 여인에게 말한다: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가서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눅 24:5-6).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을 보려고 왔다가 천사를 만나 두려움에 빠진 가운데 천사가 전해주는 부활의 기별을 듣는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마 28:5-6). 여인들은 이 놀라운 기별을 받고 급히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

난다. 예수는 무서워하는 여인들을 격려하고 안심시키신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라 하시니라"(마 28:10).

이러한 복음서 저자들의 기록은 예수의 부활이 전혀 예견치 않게 일어난 두렵고 놀라운 사건임을 특징지워준다. 제자들은 이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능욕 당하고, 침 뱉으며, 채찍질 당하고 죽는 고난을 받고 "죽은 뒤 삼일 만에 다시 살아 나리라"는 예수 자신의 고난과 다시 사상에 관한 예고를 세 번이나 들었다.(막 10:32-34; 마 20:17-19; 눅 18:31-34) 하지만 막상 예수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에 직면하여 충격 속에서 죽은 후 살아 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다. 단지 두 여성 제자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스승에 대한 여성적인 혐오의 마음으로 무덤에 애도하려고 왔다가 예견치 못한 빈 무덤의 현상과 천사들의 다시 살아나심 기별에 경악에 빠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환상(幻想)으로 보았다는 자유주의자들의 환상설 주장이 틀린 것이라고 명료히 반박하는 것이다. <계속>

이재흔 칼럼

부흥과 회복



이재흔 목사
생명수기도원장

나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똑같은 설교를 세 사람이 했는데, 한 사람은 오전 명 삼천 명씩 회개하고 신앙이 부흥하게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또 한 사람은 똑같이 설교했는데 듣던 이들이 너나 잘하라며 돌로 쳐서 죽여 버렸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세 번이나 같은 설교를 했는데 '내가 많은 지식 때문에 미쳤구나' 하고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해 버렸다. 물론 세 사람 다 성령은 충만한 상태였다고 한다.

무엇이 문제였기에 그런 차이가 나타났을까?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가 부흥과 회복이다. "부흥은 회개운동이고 회복은 새출발이다"라고 정의한다. '내가'라는 자기 의가 비워진 심령이 되기 위하여, 성령이 내주하여 함께 하실 만한 절절한 그릇이 되기 위해 하는 일이 회개다. 자기의 의로는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가 될 수 없고, 성령이 찾아와 마음 문을 두드릴 때 자기 의를 비우고 영접하는 자가 성령과 우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새사람이 되어 출발하게 되는 상태가 바로 회복이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이 고백이 성령이 살피고 있을 때 내 입에서 쏟아져 나와야, 성령이 내주하셔서 내 안에 가득한 불의를 비우시고 우리가 되게

하시고 거듭남의 길, 바로 영생 길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는 것이다. 내가 믿는 것은 종교다.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시는 믿음의 능력이 임하면 모든 말씀이 믿어지고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닌, "믿으므로" 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고 주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 성령과 약령의 역사를 분별하게 된다. 그런 은총을 사모하고 하는 것이 부흥회다.

이제 몇 날이 지나면 구주 예수가 부활의 은총을 입은 날이다. 요즘 교회들은 사순절이라 해서 예배에 열심이고, 다음 주는 고난주간이라 해서 또 행사들을 치른다. 누구를 위한 절기인가 묻고 싶다. 대강절, 대림절, 사순절, 다 천주교 절기 행사 아닌가? 우리에게 종교개혁이 꽤 여러 차례 있었다. 출애굽도 종교개혁이었고, 모든 역사가 다 종교개혁사다. 그러나 말라기 시절에 대속제사를 폐하셨는데 원인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복음 명령을 떠난 기독교 때문이었다. 그런데 자기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수가 오셔서, 창세 이래 가장 큰 종교개혁을 자기 몸을 찢으면서까지 이뤄내셨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보증과 역사로,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르라고 성령을 보내셨다.

그런데 또, 사람들이 선민이라며 세상 권

세에 빠져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니카 루터 등을 내세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성경을 모든 백성에게 공급하셨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 영광을 증거하게 하셨다. 그런데 판권을 핑계하고 성경을 오역이네 현대어네 하면서 슬금슬금 번역하더니 급기야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지워버렸다. 원어 타령하지 말고 한글이라도 제대로 알고 말해라. 제 나라 제 말도 제대로 모르는 자들이 무슨 원어냐? 그러더니 이제는 신앙 경전이 아닌 쓸데없는 종교사적이 되었다. 사순절, 고난주간이 왜 필요한가?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에게 부활과 승천 성령강림이 기념해야 할 일이고, 십자가 수난과 성탄도 보낼 수 있다 여긴다. 교회가 이제 다원주의를 넘어 혼합주의와 사회주의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서 성령충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든가. 부끄럽지 않나?

이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 절대주의가 돼야 한다. 새로운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현재 교회는 거의 절대 타락의 지경까지 떠밀려가고 있다. 새로운 종교개혁이 아니라면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달려가야 한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을 사랑하라 하자.

2026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달빛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ABHE 정회원, ATS 정회원
기독교회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목회학박사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Midwestern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의 새로운 이름
1977년 설립된 이후 지켜온 선교 지향적 교육을 토대로 다양하고 폭넓은 미래지향적 교육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증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MATS 선교학 석사, M.Div 목회학석사, Th.M 신학석사, D.Min 목회학박사

KINGDOM ENTREPRENEUR

바이오텍 비즈니스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다

텔로유스 바이오텍 B.A.M

Business As Mission 성공사례 발표

AI와 로봇이 인간의 지성과 노동을 대체하는 시대, 세상은 지금 묻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 ✓ 비즈니스는 사명입니다!
- ✓ 사명은 영향력입니다!
- ✓ 영향력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텔로유스 바이오텍은 단순한 제품이나 수익을 넘어, 세포 신호 소통(Cell Signaling) 기술을 기반으로 생명을 회복시키고 사람과 공동체를 살리는 '킹덤 비즈니스(B.A.M)'의 실제적 모델을 실현해 왔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기업가로 부르심 받은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이론이 아닌 검증된 **성공사례**를 통해

- 비즈니스가 어떻게 선교가 되는가?
- 신앙과 기업이 분리되지 않는 실제 구조
- 생명 회복 기술이 만들어내는 사회적·영적 영향력
- 차세대 Kingdom Entrepreneur를 위한 비전과 기회를 실제 사례와 간증 중심으로 공유합니다.

- 일 시 : 2026년 **3월 28일** (토) 오후 2:30
- 장 소 : 텔로유스 본사 (6820 Orangethorpe Ave, Suite G, Buena Park, CA 90620)
- 초청 대상 : Business as Mission 에 관심있는 모든 분과 차세대 창업가
- 신청 마감 : 3월 25일(수) 마감
- 신청 : 폴 김 714-732-8477 (문자 혹은 전화 신청)
Joshua Kim 718-290-4739 (차세대 영어권 담당)



폴 김
젊음 회복 프로그램 수석코치
텔로 바이오텍 뱀 디렉터



Dr. Chris Morris
세포 신호 폼물레이터



Dr. Tina Johnson
세포 신호 폼물레이터

세포 신호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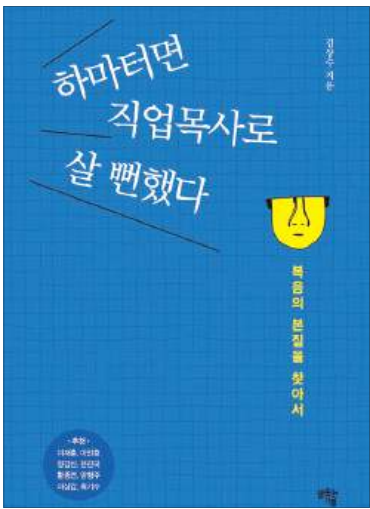
-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45분
- 장소 : 6820 Orangethorpe Ave #G
Buena Park, CA 90620
- 예약 필수 : 폴 김 (TeloYouth수석코치)
714-732-8477

자문위원

김재종 박사 : 신경과 의사/사우스베일로 한의학대학 교수, 현 라구나우즈 감리교회 장로
양성전 목사 : 대한민국 국회조찬기도회 지도위원, GMS 동남부아프리카 선교사, 강영우 박사 장학회 사무총장
필립박 목사 : 국제 나사렛교단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선교사, 뉴욕뉴저지 아시안 아메리칸 미니스트리 감독, 현 Awakening Souls Ministries Inc. 대표
미미송 박사 : Reprogreen Homecoming Ministry 대표, GLDI 공동창설자, IPP 국제선정의원, 민족교류협 미주회장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복음의 본질을 찾아서

목사, '복지와 행정 전문가·리더십 달인' 이라 불려도 될까



김상수 목사의 『하마터면 직업목사로 살 뻔했다』는 독특한 제목만큼이나 한국 교회와 목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신선하고도 깊은 성찰을 담아낸 책이다.

저자는 목회라는 사역이 단지 '직업'이 되는 것을 스스로 경계하며, 그 여정에서 겪었던 수많은 질문과 고민, 그리고 다시 붙잡게 된 복음의 본질을 생생하게 담아낸다.

이 책은 목회자들뿐 아니라 평신도, 그리고 신앙의 본질을 고민하는 모든 이에게 새로운 질문과 도전을 던진다. 급변하는 시대, 다원주의 물결 앞에서 한국교회가 내면적으로 겪고 있는 혼란과 갈등을 정직하게 마주하며,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함을 절절히 호소한다.

본문에서 저자는 "직업목사로 살 뻔했다"는 고백을 바탕으로,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교회와 목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바라보도록 이끈다. 목회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하나의 전문직업으로 인식되는 현실에서, 저자는 그것이 가져오는 위험과 한계를 솔직하게 노출시킨다.

목회의 본질은 결코 사회적 인정이나 안정된 생계에 있지 않음을 강조하면서, 무엇보다 '소명'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직업 의식에 함몰된 목회는 교회를 하나의 제도로 만들고, 목회자 자신도 복음의 증인이 아니라 종교 전문가 혹은 관리자에 머무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진단한다.

동시에 저자 김상수 목사는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각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정체성'이라고 말한다. 현대 한국 사회는 빠른 속도로 다원주의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전통적 종교 권위가 약해지고 교회의 영향력 역시 희미해진 상황 속에서, 목회자는 과연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이 책 전반을 이끈다.

저자는 이처럼 혼탁한 시대에 목회자가 '복지와 행정 전문가', '리더십 달인'이 되려는 유혹을 단호히 경계한다. 대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존재' 자체가 목회의 본질임을 거듭 강조한다.



▲예장 개혁신당 경향교회 목사 안수 모습위 사진은 본 서평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크투 DB

목회는 단순히 프로그램이나 설교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자기 헌신이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일관된 메시지다.

책에서 다루는 또 다른 중요한 논점은 '교회와 신앙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이다. 김상수 목사는 조직이나 건물, 숫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풀타임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예배와 신앙이 결코 주일,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비로소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이 살아난다고 말한다. 직업과 신앙, 일상과 예배를 분리하는 이분법 신앙에서 벗어나, 자신의 자리와 삶에서 복음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임을 일깨운다.

특히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직업과 소명, 복음의 본질에 대해 매섭게 질문을 던진다. '나는 왜 목회를 하는가?',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내가 바라는 복음은 무엇이며,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와 같은 근본적 질문 앞에서 저자 스스로 부끄러움과 갈등을 고백하면

서도, 결국 복음만이 교회와 목회, 성도 모두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임을 증언한다.

한국교회의 현실, 사회적 비판, 신앙의 꺾어짐과 같은 혼란한 문제들을 복음이라는 렌즈를 통해 바라볼 때만이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고 새로운 소명을 회복할 수 있음을 확신한다.

결론적으로, 『하마터면 직업목사로 살 뻔했다』는 단지 목회자만을 위한 자기고백서가 아니다. 평신도와 일반 독자 모두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과 같은 책이다. 오늘날 교회와 신앙인들의 위기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진정한 회복과 부흥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지 매우 현실적이고 깊이 있게 성찰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한다.

김상수 목사는 이 책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본질로,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갈 것을 단호하게 요청한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교회의 위기, 신앙의 각박함이야말로 본질에 대한 순전한 회복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 그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움과 동시에 두려움 없는 용기를 품고 다시 한 번 신앙인의 삶과 존재를 새롭게 꿈꿔볼 수 있다.

이 책은 진심 어린 성찰을 희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오늘날 신앙과 교회의 현실에서 길을 묻는 이들에게 꼭 한 번 읽어야 할 귀중한 도전장이 될 것이다.

서상진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So with you; Now is your time of grief, but I will see you again and you will rejoice, and no one will take away your joy
JOHN 16:22

지금은 너의 근심이나 내가 다시 너를 볼 때 너는 기뻐할 것이며, 너의 기쁨은 빼앗아갈 자가 없으리라
요한복음 16:22

용수산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커피와 예술이 만나는 공간!

Cafe du Gallery & E.K. Art Gallery

영/업/시/간 월~토: 9AM~7PM(일요일 휴무)

E.K. ART GALLERY

http://www.ek-artgallery.com/

문의 : 323-272-3399

1123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CAFE du GALLERY

www.cafedugallery.net

1. 말차 라떼·K-스타일 빙수와 함께 즐기는 전시 감상!
2. 넓고 시원한 공간, 식물과 예술이 어우러진 감각적 카페!
3. LA 코리아타운 한복판에서 즐기는 예술 같은 휴식!
4. 작업하기 좋은 와이파이·주차 가능·친절한 서비스!

[서성록, 한 점의 그림] 이길혜의 실버 라이닝, 희망의 소식

내일로의 힘찬 도약을 암시하는 희망의 창, 실버 라이닝

절망 속 반드시 역전 기대하고 그 작은 긍정적 신호나 가능성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 토대 삶 변혁할 힘, 오만·절망 아닌 끝까지 견디는 신앙의 희망에 우울한 사회에서 특별한 의미

작가에게 작품 주제의 일관성은 얼마나 한 문제를 심도 있게 탐구하느냐를 가능하는 척도가 된다. 이길혜는 이런 개념에 딱 들어맞는 작가다. 작가는 이전부터 '실버 라이닝'이란 주제를 다루며 그 함의를 풀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초기 작품은 부드러운 능선 위를 나는 신비의 새 혹은 저 너머 계곡을 몇 가지 색조로 형상화한 것인데, 가족과 함께 경주 반월성에 갔다 해질 무렵 능선의 아름다움에 매료돼 하늘과 땅이 교차하는 풍경을 발표했다. 그러다 2000년대 들어 실버 라이닝 초기 단계인 '운해(雲海)'를 테마로 한 작품을 발표했다. 언뜻 보기에 그의 작품은 추상 회화처럼 보이나, 실상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다. 대부분의 작품이 그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하기 때문이다.

화면에 부유하는 '운해'는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하늘의 광경에 착안한 것이다. 이 무렵 공작자인 남편과 함께 해외에 체류할 때가 많았으며, 그 후로도 자녀 유학으로 태평양과 유럽에 머물거나 여행할 기회가 잦았다.

이런 경험이 오늘의 그림을 탄생시킨 동인이 됐다. 여행을 하며 체험한 운해와 그에 대한 감정이 그를 사로잡은 것이다. 지금도 하늘을 올려다 보며 무궁한 세계의 신비감에 사로잡혀곤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의 작품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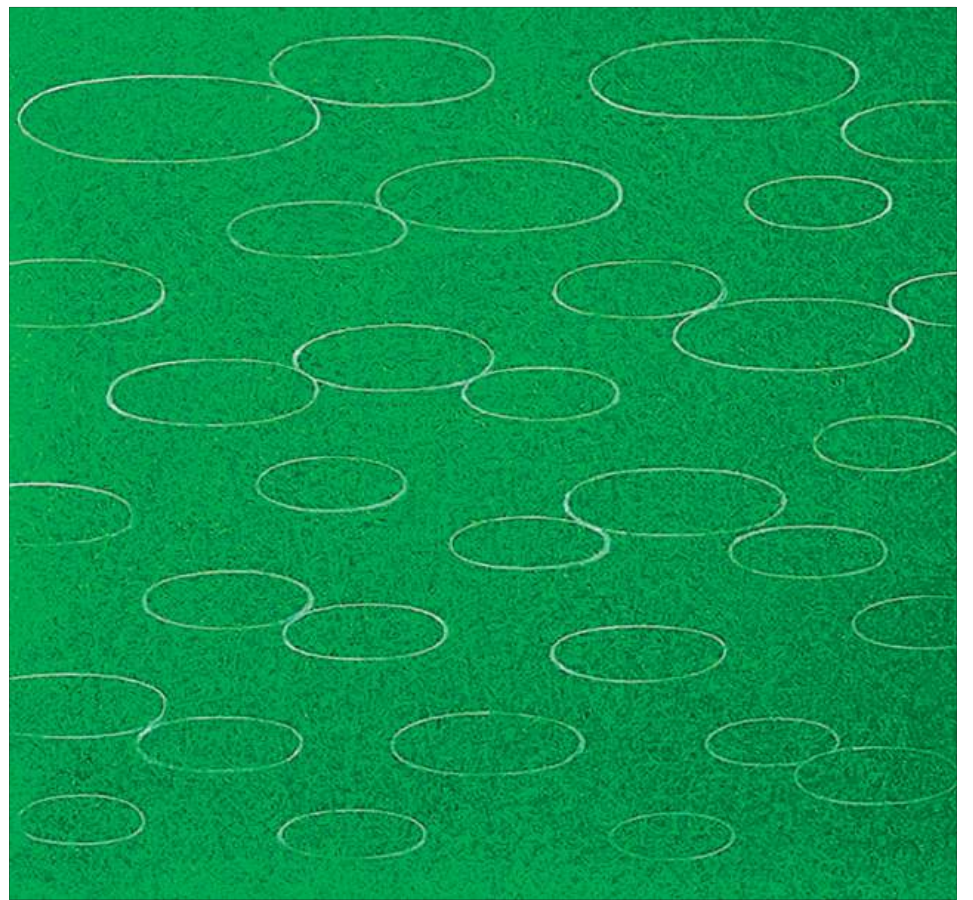
천상의 갈망이 내재돼 있는 것 같다. 그의 작품 타이틀인 '실버 라이닝(Silver lining)'은 비오고 난 뒤 먹구름 가장자리 쪽으로 밝게 빛나는 '은빛 가장자리'를 말한다. 이는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이란 말에서 가져왔는데, '모든 구름 뒤편은 은빛으로 빛난다'는 말로, 시련의 먹구름 뒤에는 반드시 희망의 태양이 떠오른다는 긍정적 의미로 사용된다. 그림을 보면 여기저기에서 구름을 연상시키는 동그라미가 떠다닌다. 그것은 정확히 말해 단순한 동그라미가 아니라, 구름의 '은빛 가장자리'를 표현한 것이다. 작가의 말에 따르면 "칠후같은 절망 속에서, 때론 보랏빛 설레임 속에서 나에게 비추어오는 실버 라이닝"을 표상한 것이다.

'실버 라이닝'은 그의 작품에서 중추적 형태이면서 동시에 작품 공간을 이룬다. 초기 명확한 윤곽에서, 근래에는 "빛과 공기를 화면에 좀더 담아 정체되지 않고 움직이는 분위기를 표현하고자 했다. 공간의 유동성과 흐름으로 인해 화면에 숨결을 불어넣은 느낌이 든다. 빛과 공기 주입으로 화면에 일종의 번주랄까 리듬감을 느껴볼 수 있다.

그림을 관찰하다 보면 화면이 사각형 틀을 유지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반월성능선을 화면 하단에 배치시켜 원경까지 바라보았듯, 이제 마치 창문을 통해 저 너머 공간을 바라보는 구도를 취한다.

그림을 감상할 때 마치 작가의 시점에서 직접 하늘을 응시하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하려는 의도된 장치이다. 다음 포착할 수 있는 것은 구름 이미지들의 상호 관계다. 화면에 떠 있는 구름 이미지들 중 어떤 것은 이웃하고, 어떤 것은 동떨어져 있으며, 어떤 것은 군집 형태를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이미지를 자기 목적적 조형으로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시각은 작가의 의도와 배치된다. 가깝게 지냈던 김수지 박사는 그의 동그라미를 보고 '소통과 대화'라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지적은 작가가 추구하는 바를 정확히 짚어준다. 작가가 그림을 그릴 때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이 바탕 작업과 동그라미 배치 문제다. 종이로 물감을 찍어 화면 전체에 고르게 찍는 과정은 색의 밀도와 층위를 조절하는 초기 단계다.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화면에는 미묘하고 풍부한



▲이길혜, 실버 라이닝, 72.5x72.5cm, 캔버스에 유채, 2024.

질감이 형성되며, 이는 작품에 시각적 깊이감을 더해준다. 마치 오랜 세월이 퇴적된 듯한 느낌이나 안개가 낀 듯한 분위기의 연출을 돕는다.

바탕의 정지 작업이 마무리됐다 싶으면, 화면에 동그라미를 올리는 과정을 밟는다. 작가는 한동안 동그라미를 여기 놓을까 저기 놓을까, 아니면 가까이 붙일까 떼어놓을까 이런 문제들로 고민한다.

사소한 문제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그가 작업에서 신경쓰는 부분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동그라미 배치에 따라 작품의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길혜는 가깝기도 하고 떨어져 있기도 한 구름 이미지를 통해, 우리 삶의 양태를 은유한다.

이제 그의 작품 주제인 '실버 라이닝'에 주목해 보자. 그의 작품을 볼 때 우리가 맞닥뜨리는 것은, 하늘에서 희미하게 혹은 선명하게 흘러나오는 빛줄기다.

이 이미지에서 유추할 수 있듯, '실버 라이닝'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찾아낼 수 있는 한 가닥 긍정적 측면, 즉 '희망'을 상징한다. 마치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빛줄기를 보고 안도하듯, 그렇게 희망을 안겨주는 빛줄기다.

작가가 추구해온 '실버 라이닝'이 요즘만큼 적절하게 다가온 적도 없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눈부신 경제적 발전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들도 자주 눈에 띈다. 사회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자주 만난다. "산다는 것은 희망을 무덤 속에 묻는 것이다(Fontane)"는 비통한 외침마저 들을 수 있다.

이런 정서적 지표는 사회적 삶의 원동력이 꼭 물질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듯하

다. 때로는 희망이 모조리 타버린 분화구를 문화의 심부에서 발견하기도 한다.

'실버 라이닝'은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사태가 역전되리라는 기대 그리고 그 기대를 뒷받침하는 작은 긍정적 신호나 가능성을 의미하고, 이는 곧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토대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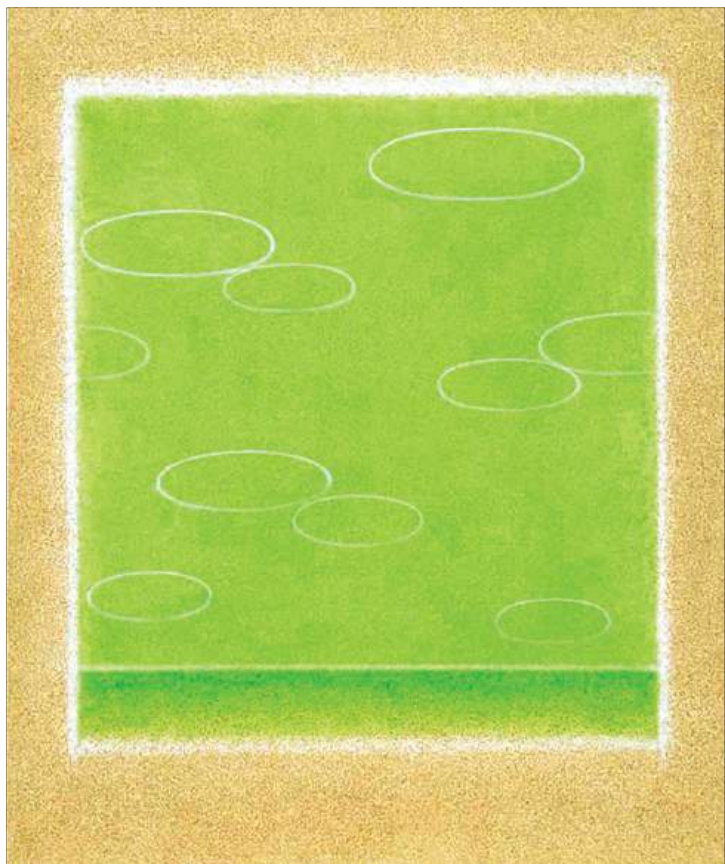
절망과 좌절, 그리고 부정적 인사가 폭주하는 사회에서 '실버 라이닝'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를 넘어, 생존과 회복을 위해 없어선 안 될 조건이 된다. 위르겐 몰트만(Jürgen Moltmann)이 말하듯 삶을 변혁하는 힘은 오만이나 절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신앙의 확고한 희망에 있다.

필자는 그의 작품이 요즘처럼 우울과 좌절의 풍파가 휘몰아치는 사회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짊어진 문제로 힘겨워하지만, 작가는 문제 자체에 매몰되기보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짊어진 문제의 답장을 넘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절망의 다양한 형태들이 희망의 창조적 능력에 비할 바 못 된다는 확고한 신념이 필요하다. 이럴 때 '실버 라이닝'은 개인의 희망을 넘어, 공동체의 평화와 회복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길혜의 '실버 라이닝'은 내일로의 힘찬 도약을 암시하는 희망의 창으로 읽힌다. 먹구름 뒤에 실버 라이닝이 찾아온다는 것만큼 반가운 소식도 없다. 그의 작품은 "사나운 돌풍 속에서 가장 감미롭게 들리는 노래(에밀리 디킨슨)"처럼 '희망의 소식'을 들려준다.

서성록 명예교수(안동대 미술학과)



▲이길혜, 실버 라이닝, 72.5x60.6cm, 캔버스에 유채, 2024.

사순절을 훈련과 실천의 기간으로!

사순절 기간 하루 한끼 금식으로 가난한 이웃에게 소망을 나눕시다

World Share USA 홍보 대사

(고) 진용대 목사 지형 교수

World Share USA 홍보 대사로 섬겨주신 **진용대 목사**님이 지난 2월 9일에 소천하셨습니다. World Share USA는 목사님의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orld Share USA는 사순절 신앙 훈련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사순절 기간 중에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며 바른 신앙을 키웠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처럼 기도, 묵상, 나눔 그리고 선교가 실천되는 2026년 사순절이 되기를 기도하며 사순절 신앙 캠페인을 펼칩니다! 목사님! 성도님! 교회와 성도들이 사순절을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World Share USA 2026 사순절 캠페인 준비위원장 민경업 목사의 준비위원 활동

2026 사순절 개요 시작일: 2월 18일~종료일: 4월 4일

World Share USA는 소망학교(아이티, 도미니카), 고아원(수리남), 전쟁 희생 유가족(우크라이나) 돕기를 합니다. 전쟁 희생 유가족, 전쟁 난민(우크라이나) 돕기를 합니다.

어떻게 참가할까요?

- 개인** 월드쉐어USA로 사순절 나눔의 금식에 참가 통보 (가능한 미리 공지 및 통보 해주시면 사순절 기간을 더 잘 보낼 수 있습니다.)하시고, 사순절 금식 선교비를 월드쉐어USA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교회** 나눔의 금식 참가의사를 월드쉐어USA에 알려 주시고, 성도들에게 참가를 권면하시고 성도들의 금식비 선교비를 월드쉐어 USA로 전달하십니다.
- 월드쉐어 USA** 전쟁과 극한의 추위에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국민, 아이티, 수리남, 도미니카 공화국 등 극빈지역 아동들과 소망학교에 영적 양육과 성경 필사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2026 나눔의 사순절 섬기시는 분들



후원문의 (323)578-7933 강태광 목사
3123 W. 8th St. #206, Los Angeles, CA 90005

손헌보 목사 사건, 美 CBN서 연속 조명...

지난해 9월 부산의 세계로교회 손헌보 목사 구속 사건이 한국 사회는 물론 외신의 지속적인 주목을 받으며 종교 자유를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 기독교 매체 CBN뉴스는 손목사가 약 5개월간의 수감 생활 이후 석방된 지 세 번째 주일을 맞아, 부산의 세계로교회를 직접 방문해 현장 분위기와 인터뷰를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손 목사의 수감 소식을 비롯해 관련 소식을 지속적으로 전해 왔다.

CBN 뉴스는 “예배는 활기찬 음악으로 시작됐고, 그 다음에는 많은 교회에서 볼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바로 담임목사와 학생들 간의 질의응답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손 목사는 아이들에게 지난 주일에 예배 주재했던 정교분리에 대해 질문했다.

그러자 한 학생은 “정교분리는 국가가 교회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고, 또 다른 학생은 “그



▲손헌보 목사가 3월 22일 발언하고 있다. ©유튜브

원칙이 없다면 정부가 교회를 통제하고,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를 빼앗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목사는 “이러한 다음세대를 염두에 두고 공격 발언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성경적 가치관을 지지하는 후보를 인터뷰한 혐의로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손 목사는 인터뷰에서 “최근 정치 환경 변화 속에서 종교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종교적 신념이 정치와 연결될 경우 정부가 교회에 대한 조사와 제재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입법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좌파 정부가 집권하면서 종교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다. 지난 1월 발의된 민법 개정안에는 종교적 발언이나 신념이 정치와 연관

될 경우 정부가 교회를 해산하고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영장 없이도 조사와 점검이 가능하며, 교회의 자산과 재산을 정부에 귀속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경남 창원시 진해구)은 “교회는 신앙과 양심의 공간으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종교 자유 침해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 목사의 구속 이후 교계에서는 종교 자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교회 지도자들은 집회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며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지도자들은 “정부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성경적 진리를 실천하고 말할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손 목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감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며 교계 지도자

들을 독려했고, 필요하다면 다시 수감되는 것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수감 기간 동안 80여 명의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짧은 기간 저술 활동도 이어갔다”며 “매주 주일이 되면 교도소가 아닌 예배의 자리처럼 느껴졌다. 얼마 전에는 한 수감자가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손 목사의 가족은 워싱턴 D.C.를 방문해 정부 관계자들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이후 외교적 접촉 과정에서 해당 사안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주한 미국 측 관계자들이 재판을 참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목사는 인터뷰 말미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는 선조들의 희생과 신앙 위에 세워졌다”며 “다음세대가 성경적 가치 위에 설 수 있도록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혜진 기자

랍 맥코이 목사 “침묵은 동의... 신앙 위해 목소리 내야”

미국 청년 보수 단체 터닝포인트 USA ‘페이스(Faith)’ 의장을 지낸 랍 맥코이(Rob McCoy) 목사가 22일 부산 세계로교회 주일예배에서 요한복음 19장 38~42절을 본문으로 ‘Caring the King’s Body(왕의 장례)’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맥코이 목사는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맡았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을 조명하며,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았던 이들의 모습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신앙을 드러내는 문제와 관련해 “침묵은 단순한 중립이 아니라 동의를 의미한다”며 “신앙의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침묵하는 것은 결국 그 상황에 동의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맥코이 목사는 니고데모를 ‘밤에 찾아온 신앙인’으로 설명하며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해 신앙을 드러

내지 못하는 ‘니고데모형 그리스도인’이 오늘날에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가장 위험한 순간에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하며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다”고 대비했다.

그는 유대인의 장례 관습을 상세히 설명하며, 두 인물이 예수의 시신을 씻고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이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왕을 향한 마지막 헌신’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사회적 지위와 재산, 종교적 지위까지 잃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행동했다”고 말했다.

맥코이 목사는 “당시 가장 부유했던 인물 중 하나였던 니고데모가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는 기록도 있다”며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을 위해 행동했다”고 덧붙였다.

설교 후반부에서는 베드로의 부인과 화복 이야기를 언급한 그는 “신앙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맥코이 목사는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불러 세우셨고, 결국 그는 복음을 위해 생명을 내놓았다”며 “오늘의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드릴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맥코이 목사는 “우리는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며 “지금 한국교회에는 니고데모와 요셉처럼 모든 것을 걸고 나설 신앙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민법 개정안 막아야... 독립운동 하듯 나서자”

이날 예배에서는 손헌보 목사도 별도의 발언을 통해 최근 발의된 민법 일부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응을 촉구했다.

손 목사는 해당 법안을 “종교단체를 겨냥한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법원의 영장 없이 압수수색과 재산, 재산 국고 귀속까지 가능하게



22일 부산 세계로교회 주일예배에서 설교하고 있는 랍 맥코이 목사 ©세계로교회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법이 통과되면 결국 신앙의 자유 자체가 위축될 것”이라며 “이는 특정 신앙적 입장을 가진 교회들을 침묵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독립운동을 했던 것처럼, 지금도 행동해야 할 때”라며 해당 법안에 반대하기 위해 오는 4월 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예정된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손 목사는 “아무리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말하지 않으면 그것 역시 하나의 행동이며, 결국 동의가 된다”며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자유를 물려주기 위해 지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이 법안을 막아야 한다”며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최승연 기자

학생모집 **캘리포니아 두란노대학교**
 B.th, Th.M, M.Div, D.Min, Th.D **coafs-07-388665**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신학박사 인가 대학은 3곳뿐입니다.**
 ■ 학교운영하실 분 \$7만불 (신학철학책 1만권 포함)
 ■ 나성중부교회 김 호 박사 / 캘리포니아 디렉터
213-507-1933

김영길 목사의 가슴으로 읽는 성경
 지친영혼을 깨우는 아침 10분 처방전
큐알코드 촬영 후 구독신청해 주세요
 영혼을 위한 아침 처방전(Morning Prescription)
 [복용법] 매주 월/수/금 아침, 출근길이나 조용한 시간에 복용하세요.
 [효능] 불안 완화, 마음의 편안, 영적 회복
 Youtube.com / @Youngkimgamsa

문선영의 머니토크
비즈니스도 잘 안되는데, 처분할 때 이것 하나는 챙겨 나오십시오.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 머니토크**의 재정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재정전문가 문선영입니다.

13년 동안 손님들을 만나고 상담하면서 정말 많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경험이지요. 그 많은 교훈 중 하나는 지혜로운 분들을은 무조건 뭐라도 대안, 플랜 B는 꼭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비즈니스를 하다가 은퇴할 때 비즈니스를 팔고 그냥 그것으로 은퇴 하시느냐, 혹은 은퇴 플랜까지 챙겨서 나오느냐 이 두 가지의 경우입니다.

님 표현대로 라면 정말 이제는 세탁소 거저 주고 나와 할 정도라고 하시면서 거의 미국 생활 평생을 세탁소를 하셨지만 고작 세금 내고 뭐 하고 해서 세탁소를 팔고 남은 돈은 9만불 밖에 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지난 26년 동안 이 분 생보보험과 IRA를 통해서 은퇴로 이제 찾아 쓸 수 있는 금액만 해도 40만불 정도를 따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비즈니스 하는 동안 한달에 3백불씩 나가는 것은 있어도 되는 돈 없어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해서 부부가 함께 생명보험을 가입하셨고, 세금을 다 내지 않고 세금 면제 받을 수 있으니 가입하라는 CPA님의 조언대로 일년에 평균 7천불씩 넣은 IRA가 있었습니다.

현재 각각의 캐쉬밸류, 여카운트 밸류에 쌓인 돈을 보니 40만불 정도가 되었죠. 이것으로 이 분들은 이제 비즈니스 접고 남은 돈 9만불과 이 40만불로 과연 우리 은퇴가 가능하겠습니까 하고 찾아 오셨던 분들입니다. 네 이 분들에게 한달에 두분이서 함께 살 수 있는 은퇴 플랜 6천불씩이 고정으로 나오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어떤가요. 정말 지혜롭지 않나요? 비즈니스 하는 동안 한 달에 3백불, 일년에 7천불은 많다면 많지만 없는 돈 셈치고 또 모으면 모을 수 있는 돈인데, 그것을 하지 않고 이사장님께서 그냥 26년 비즈니스를 접으셨다면 아마도 9만불이 전체 비즈니스에서 마련한 은퇴 자금일 것인데, 이 분께서는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재정 상담을 전문적으로 받아

서 엑스트라로 비즈니스 이외에 40만불을 적립한 것 아닌가요?

오늘도 저희 에이전트들이 비즈니스 특히 스포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찾아 다니며 은퇴 플랜을 위해 상담 받아 보세요~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아이고 장사도 안되는데 왜이리 귀찮게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많이 계시죠.

저희 에이전트 분들이 거절당하고 오는 경우가 많입니다. 비즈니스가 더 잘 되면 그때 해야 하시겠지만, 어쩔면 절대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 비즈니스가 좀 나아지려나 싶으면 수리 하거나 목돈이 들어가는 일들이 터지고, 여기서 돈 빌려 달라해서 빌

려줘야 하는 일이 생기고, 자녀들이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기고, 정말 어쩔 이렇게 비즈니스 편하고 내 속 편한 날은 오지 않는지 다들 경험하시지요? 그래서 비즈니스 하는 동안 그냥 눈 딱 감고 재정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결심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순간 사장님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미래를 위해 오늘 튼튼한 집 한채를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비즈니스가 잘 되면 따로 비즈니스 하면서 준비한 은퇴 플랜이 보너스가 될 것이고, 만약 비즈니스

가 안되서 비즈니스 처분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못온다고 하더라도 은퇴 플랜 하나가 든든하게 갖춰질 거라는 거지요. 내 비즈니스로만 은퇴하겠다고 이 악물고 성실히 일하고 계시는 사장님들, 저희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결심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순간 사장님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하나씩 도와드릴 수 있도록 문을 조금만 열어주십시오.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저 문선영과 저희 매니저님들이 비즈니스 안에 은퇴 플랜! 멋지게 하나씩 세워 드리겠습니다.



NYSKC Movement

예배 회복 운동 사역 안내

예배가 회복되면 교회가 살고 나라와 가정이 산다!

"When the worship is restored, the church is risen,
the nation is renewed, and the family is revived."

Leadership Academy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는 훈련이다.
예배는 신앙의 본질이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 주신다는 믿음의 훈련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함을 믿음으로 세우는 훈련이다.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원리로 섬기는 교회에서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성도로 훈련하는 훈련이다.

주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12:1)

일시 2026년 4월 6일(월) ~ 8일(수)

장소 Online

NYSKC Symposium

Nyskc Learned Society는 전 세계 예배회복과 회복의 신학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 및 목회자들이 모여 활동하는 학문의 연구와 토론의 학회이다.

주제 예배회복 (아모스 9: 11-15)

일시 2026년 5월 4일(월) ~ 6일(수)

장소 Nyskc World Mission Center

Family Conference USA

주님의 자녀에서 제자로, 복음의 군사에서 사도가 되기 위한 Spiritual Training을 통하여
기도훈련으로 영혼의 호흡을, 성경공부로 영혼의 양식을 얻으며, 신앙의 열매를 얻기 위해
전도훈련을, 성령의 교통을 이루려는 경건의 훈련을, 축복의 자녀가 되기 위해
헌신의 훈련을 하는 성회이다.

주제 영적예배를 회복하라! (로마서 12:1-2)

일시 2026년 6월 30일(화) ~ 7월 2일(목)

장소 Pepperdine University

참가신청 및 문의

서부/ 213.249.2467

동부/ 845.224.3277

NYSKC WORLD MISSION USA HQ.

127 Eatontown Rd. Greenville, NY

총재 :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 최고센 목사

사무총장 : 김은목 목사